

## 에콰도르 국기



- 에콰도르 국기는 노랑, 파랑, 빨강색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율은 각각 2:1:1이고 1860년 9월 26일 정식으로 제정
  - ◇ 노랑 : 금, 비옥한 토지, 천연자원을 상징
  - ◇ 파랑 : 바다, 맑고 푸른 하늘을 상징
  - ◇ 빨강 : 에콰도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의 희생을 상징
- 방패모양의 문장에는 에콰도르를 대표하는 칭보라소 산, 과야스 강, 콘도르 등 표시
  - ◇ 태양 : 에콰도르의 비옥한 땅을 비추고, 태양 옆의 별자리기호는 독립 투쟁 기간 중 가장 치열했던 3, 4, 5, 6월을 의미
  - ◇ 칭보라소 산 : 안데스 산맥 내 에콰도르에서 가장 높은 산(6,263m)
  - ◇ 과야스 강 : 칭보라소 산의 눈이 녹아 흐르는 강으로, 해안가 토지를 비옥하게 하며, 에콰도르 국민의 우애를 의미
  - ◇ 증기선 : 과야킬 조선소에서 최초로 만든 증기선이며, 증기선 위에 신의 전령인 Hermes(Mercury) 지팡이 문양은 항해와 무역을 상징
  - ◇ 콘도르 : 두 날개를 펼친 콘도르는 안데스를 대표하며, 힘, 장대함, 자부심을 상징

## 에콰도르 국가

“오, 조국을 구원하기를(Salve, Oh Patria)”



- 에콰도르 평화와 행복의 영원을 담아 식민지 역사와 투쟁, 자연 환경 등에 대한 가사가 주 내용
- 1865년 상원의장 Nicolás Espinosa의 요청으로 시인 Juan León Mera가 가사를 쓰고, 프랑스 작곡가 Antonio Neumane이 곡을 만들어 완성
- 곡이 완성된 이후 1870년 키토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최초로 연주되었고, 1948년 의회에서 국가로 정식 법제화
- 동일한 가사의 합창으로 시작해 6절로 나뉘는 독창 부분으로 나뉘는데, 보통 합창과 독창 2절만 부르는 것이 일반적

## 에콰도르 지도



## 목 차

I. 개관	.....
1. 개관	
2. 지역현황	
3. 주요도시	
II. 역사	.....
1. 잉카제국 이전 및 잉카제국 지배	
2. 스페인 식민시대	
3. 독립 이후	
III. 정치	.....
1. 국체 및 정체	
2. 행정부	
3. 입법부	
4. 사법부	
5. 시민참여 사회통제이사회 및 선거관리기구	
IV. 군사	.....
1. 국방정책 및 임무·목표	
2. 국방조직도 및 산하기관	
3. 군사력 및 국방비	
4. 모병제도	
5. 국방장비보유 현황	
V. 국내정세	.....
1. 2017.5월 이전까지의 국내정세	
2. 모레노 신정부 동향	
VI. 대외관계	.....
1. 대외정책 기초	
2. 외교조직 및 체제	
3. 주요 외교정책	
4. 주요국과의 관계	
VII. 경제	.....
1. 에콰도르 경제의 특징	
2. 코레아 정부 경제정책 평가 (2007.1 - 2017.5)	
3. 모레노 정부 경제정책 (2017.5 - )	
4. 최근 경제동향	
5. 주요 거시경제 지표	
6. 에너지·자원 현황	
7. 통상 정책	
8. 주요 경제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VIII . 사회 및 문화** .....

1. 사회의 특징
2. 풍속 및 문화
3. 주요일간지 및 방송매체 정보
4. 교육제도
5. 공휴일 및 주요축제
6. 주요 문화재 및 관광지
7. 스포츠

**IX. 한·에콰도르 관계** .....

1. 대 한반도 정책
2. 양국관계 특기사항
3. 외교관계 연표
4. 주요인사 교류
5. 협정 및 조약
6. 기관간 약정 및 양해각서(MOU)
7. 한-에콰도르 양자 협의체
8. 무상원조
9. 유상협력
10. 교역 및 투자
11. 재외동포 현황

**X. 에콰도르-북한 관계** .....

1. 외교 관계
2. 인사교류
3. 에콰도르-북한 교역
4. 에콰도르-북한 관계 현황

**XI. 출입국제도 및 체제 시 유의사항** .....

1. 입국 사증
2. 영주권 제도
3. 출·입국시 유의사항
4. 기타 참고사항

# I. 개 관

## I. 개 관

### 1. 개관

- 정식국명: 에콰도르 공화국(República del Ecuador)
- 면 적: 283,561㎢ (CIA World Factbook, 한반도의 약 1.3배)
  - 남북길이 725km, 동서길이 640km
  - ※ 행정구역은 24개 주로 구성되며, 통상 동부 아마존(Oriente), 중부 산악(Sierra), 서부 해안(Costa), 갈라파고스 제도 4개 지역으로 구분
- 인 구: 1,700만 명 (2019.3월, Worldometers 자료)
  - 인구 증가율: 약 1.44% / 평균연령: 26.9세 / 65% 도시거주 / 세계 68위 / 성비 (여) 50.04%, (남) 49.96%
  - 약 2~3백만 명 해외거주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등)
- 인종구성: 메스티소 71.9%, 인디오 7.0%, 흑인 7.2%, 유럽계 6.1%, 몬투비오 (해안지역) 7.4%, 기타 0.4% (INEC, 2010)
- 수 도: 키토(인구 270만 (INEC))
  - 고도 2,850m 적도상에 위치, 1534년 스페인 식민도시 건설, 1979년 역사지구 UNESCO 문화유산으로 지정
-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및 11개 기타 부족어(키추아어, 슈아르어 등)
- 종 교: 가톨릭(90% 이상)
- 독립기념일: 8.10
  - 1809. 8. 10. 독립 선언
  - 1822. 5. 24. Gran Colombia\* 독립
  - ※ 현재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 지역
  - 1830. 5. 13. Gran Colombia에서 에콰도르 분리 독립
- 국체: 공화국
- 정체: 대통령 중심제(임기 4년, 연임 가능), 국회단원제(임기 4년)
  - 대통령: Lenín Boltaire Moreno Garcés(2017.5.24. 취임)

- 부통령: Otto Ramón Sonnenholzner Sper(2018.12.11.취임)
- 외교부장관: José Samuel Valencia Amores(2018.6.11. 취임)
- 군사력: 총병력 46,000명
  - 육군: 35,000명
  - 해군: 8,000명
  - 공군: 3,000명
- 경찰: 44,000명
- 국내총생산(GDP): 1,042억 불(2018년)
- 1인당 GDP: 6,217불(2018년)
- 경제성장률: 1.2%(2018년, 에콰도르 중앙은행(BCE))
  - ※ 국제통화기금(IMF) 1.1%, 세계은행 1.5%
- 교역액: 447억 불(2018년 수출 216억, 수입 231억, BCE)
- 물가상승률: -0.27%(2018년, BCE)
- 실업률: 4.8%(2018년, BCE)
- 외국인 직접투자: 2억 불(2018년 3분기, BCE)
- 외환보유고: 26.7억 불(2018년, BCE)
- 국가부채: 850억 불(2018년, BCE)
  - 외채: 356억 불
  - 국내부채: 494억 불
- 화폐: 미국 달러화
- 한-에 교역량 (2018, KITA): 8.9억 불
  - ※ 수출: 7.81억 불(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등)
  - ※ 수입: 1.16억 불(새우, 바나나 등 농수산물, 동피 및 스크랩 등)

- 기후: 21개 기후대가 존재하며, 11-4월간 우기
  - ※ 연 평균 기온 및 강우량 : 해안지역 25-31℃, 250-3,000mm  
산악지역 13-18℃, 700-1,500mm  
아마존지역 23-32℃, 3,000-4,000mm
- 전 세계 식물중 10%, 조류중 18%가 서식
  - 26개의 환경 보존 구역 및 국립공원이 전 국토의 18% 차지
  - ※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 세계 최고 수준

- 스페인이 건립한 대표적인 계획 식민도시로 르네상스식 도시계획을 남미에 성공적으로 접목한 사례이며, 구시가지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 1999년 UNESCO 세계문화유산 지정
- 일명 ‘파나마 모자’라고 불리는 Paja Toquilla 또는 Jipijapa 끈으로 만든 모자의 원산지로서 수공예 발달

## 2. 지역현황

- 정치 및 행정구역으로 4개 지역(Regiones), 24개 주(Provincias)가 있으며, 하부 조직으로 현(Cantones)과 농촌구(Parroquias Rurales)
  - ※ 안데스지역(Sierra)은 10개 주, 해안지역(Costa)은 7개 주, 아마존지역(Amazonica)은 6개 주, 도서지역(Insular)은 1개 주로 각각 구성.

## 3. 주요도시

- 키토
  - 스페인 정복 이전의 원주민인 ‘키투스(Quitux)’에서 도시명 유래
  - 안데스산맥 중턱에 위치한(약 2,800m) 남미의 가장 오래된 수도로서 정치, 문화, 경제 중심 도시로 대통령 궁을 비롯한 정부 기관 등 소재
  - 16세기 잉카의 잔해 위에 세워졌으며, 1917년 지진에도 불구하고 옛 도시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1978년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 스페인 식민시대부터 대지주 중심 귀족 계급과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거주하였고, 안데스 산지 원주민의 배타적 성향도 융합되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
- 과야킬
  - ‘에과도르 경제수도’로 불리는 최대 도시로 태평양에 인접, 항구도시로 무역업이 발달하였고, 수산업과 바나나 생산의 중심지
  - 자유상공인 중심의 전통과 해안가 더운 지방의 기질이 융합되어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성향
- 쿠엔카
  - 에과도르 남부 안데스 산맥 계곡에 위치(약 2550m)
  - 문화, 예술 등의 발달로 ‘에과도르의 아테네’로 불리며 시내에 4개의 강이 흘러 아름다운 풍광 자랑

## II. 약사

## II. 약사

### 1. 잉카제국 이전 및 잉카제국 지배

- 에콰도르는 8개의 원주민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5세기 전반에 키토 왕국의 지배가 확립되어 1460년 잉카제국에 정복될 때까지 존립

### 2. 스페인 식민시대

- 1532년 스페인의 정복자 피사로가 잉카제국 멸망, 스페인의 식민통치 시작
- 초기에는 페루 부왕령에 속해 있었으나 1717년부터 “누에바 그라나다” 부왕령 관할로 변경
- 1563년부터 일종의 자치행정조직인 아우디엔시아(상위의 사법, 입법, 행정기관) 관할구가 오늘날 에콰도르 영토의 기반
- 1809.8월 독립운동이 시작되어 1822.5월 피친차 전투에서 시몬 볼리바르의 부하인 안토니오 호세 데 수크레 장군이 호세 산 마르틴 장군의 지원 하에 키토 해방에 성공

### 3. 독립 이후

- 1822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나마와 함께 시몬 볼리바르의 그란콜롬비아(Gran Colombia) 일원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후 1830.5월 에콰도르가 분리 독립하여 후안 호세 플로레스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
- 독립 후 과야킬 상공업 자유파와 키토 봉건 지주 보수파 간 정쟁으로 인한 정치 불안정과 페루 및 콜롬비아와의 국경분쟁이 지속되었으나 19세기 후반의 가르시아 모레노, 20세기 초의 엘레이 알파로 대통령 집권기에 경제발전 달성
- 1920년대 국제 코코아 시장 붕괴 및 1930년대 대공황 등 외부 충격으로 1931-1948년간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어 21개 정부가 난립
  - 1941년 페루가 에콰도르 아마존지역 침공, 이후 60년간 국경분쟁 발생
- 1944년 5월 공산당, 사회당 등이 연합한 민주연맹이 아로요 델 리오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7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연맹이 지지하는 벨라스코 이바라가 당선.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바나나 수출 증가로 인한 안정된 재정수입을 기반으로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다소 안정

- 벨라스코 이바라는 1960년 선거에서도 토지개혁 등 진보적 정책으로 재차 당선되었으나 화폐 평가절하 등 경제적 혼란, 반정부운동 탄압 등 독재정치로 1961년 11월 학생, 군부의 반란으로 망명하고, 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훌리오 아로세메나 대통령은 누진소득세, 농지개혁 등 진보적 정책을 추진
- 1960년대 쿠바 혁명의 영향에 따른 사회적 소요 확대로 1963년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 후 1978년까지 군사 통치
  - 군사정부는 반공정책과 1972년부터 석유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경제근대화 정책 추진
- 1979년 민주화 이후 1980년대 중도파와 우파 간 정권이 교체 양상을 보이다가 1990년대 우파 정권이 장악하면서 상대적으로 정국 안정
- 1990년대 중반부터 대중영합(Populism) 정치가 득세하면서 롤도시스타당의 압달라 부카람, 국민민주당의 하밀 마우아드, 애국사회당의 루시오 구티에레스, 알파로 진보전선당의 Fabián Alarcón 등 4명의 민선 대통령이 파벌정치, 부패, 경제운용 실패 등 실정으로 중도 하야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이 증대
  - 국민민주당의 하밀 마우아드 대통령은 1999년 페루와의 평화조약 체결 업적이 있었지만, 1998년 엘니뇨 현상에 따른 30억불 손실, 43% 인플레이션 등 금융 위기와 부정부패 스캔들 등으로 2000.1월 수도 키토에서 인디오 주도의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면서 군부의 압력으로 하야
- 2000.1월, 부통령인 구스타보 노보아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IMF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2000. 7월 미 달러 공용화폐화 정책(Dolarization)을 시행하는 등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으나,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여 의회, 노동조합 및 인디오단체 등의 압력에 직면하여 공공부문 임금 40% 인상, 수입관세 폐지 및 반독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개혁의 동력 상실
- 2002.11월 루시오 구티에레스는 애국사회당 후보로 출마, 원주민 정당인 Pachakutik(PP)과 민주인민운동(MPD) 등 좌파의 지지로 당선되어 달러화정책 유지, 미국과의 관계 강화 그리고 국제금융기구(IMF 등)의 협조 하에 경제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정책적 이견 및 내각임명 갈등 등으로 2003.8월 좌파정파와 결별 후 대법원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면서 야당 등의 반발을

초래, 2005.4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국회는 구티에레스 대통령을 헌정질서 파괴 사유로 탄핵하고 부통령 알프레도 팔라시오를 대통령으로 추대

- 2006.11월 무소속으로 출마한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후보는 신헌법 제정, 부패척결, 소득 불균형과 빈곤 퇴치 등 3대 주요 공약으로 예상을 뒤엎고 2007.1월 대통령직에 취임
- 코레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실시된 2007.9월 재헌의회 선거에서 여당인 Alianza PAIS가 총 130석 중 80석을 차지하여 소위 시민혁명(Revolución Ciudadana) 추진의 기반을 마련
- 2007.11월 개원한 재헌의회는 기존 국회를 무기한 휴회토록 하고, 신헌법 개정작업을 추진, 2008.9월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의 중임(1회 연임) 허용, 의회 해산권 부여 및 중앙은행을 대신한 정부의 통화정책 관리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신헌법안이 63.9% 압도적 지지로 통과
- 2009.4월 신헌법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코레아 후보가 51.9%의 지지를 얻어 30년만에 최초로 1차 선거에서 재선이 확정되어 2009.8월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의회선거에서는 총 124석 중 집권당인 Alianza PAIS가 59석만 확보함에 따라 Alianza PAIS는 여타 정당 간 연합을 통하여 과반 의석을 유지
- 2011.5월, 코레아 대통령은 10대 국정 개혁안에 대한 국민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최저 51.6%에서 최고 56.5%의 지지를 얻어 임기후반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2013년 대선에 재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이후 2013.2월 실시된 대선에서 코레아 대통령이 1차 투표에서 56.7%로 3선에 성공하였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당인 Alianza PAIS가 전체 137석 중 100석을 확보, 국회 다수당이 됨에 따라 10대 국정 개혁안 관련 개정안들도 무난하게 통과
- 코레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위한 헌법 개정은 2013년부터 제기되었으나, 집권 여당이 2014.2월 지방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의회는 2015.12월 모든 직선제 선출직의 무제한 재선 허용 등을 포함한 총 15개 조항 개정을 승인
  - 개정안 경과조항에 따르면, 코레아 대통령의 2017.2월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나 2021년부터는 무제한 재출마가 가능

- 2014년 말부터 국제유가 하락 등 재정적자 심화 등으로 코레아 정부 지지율 지속 하락
- 2017.2월 대선 1차 투표에서 여당(Alianza PAIS) 후보 레닌 모레노(Lenín Moreno) 前 부통령과 은행가 출신의 야당(CREO-Suma) 기에르모 라소 후보가 각각 39.4%, 28.1%를 득표, 2017.4월 결선투표에서 모레노 후보가 51.2%로 승리함으로써 코레아 좌파정부를 계승한 모레노 신정부가 2017.5.24. 출범
- 모레노 신정부는 코레아 전 정부 10년간 과도한 확대재정 및 차관도입으로 인한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시장자유주의 기조 아래 긴축재정, 세수 확대, 외국인 투자 증진, 미국·유럽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 등 추진
- 2018.2월 모레노 대통령은 코레아 전 대통령의 2021년 재출마 차단 등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승리, 이후 코레아 전 대통령 인맥 청산과 부패 척결 및 투명성 강화 정책 추진
  - 코레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글라스 부통령을 브라질 오데브레치(Odebrecht)사 뇌물 수수 혐의로 2017.8월 구속, 이후 선임된 비쿠냐 부통령을 금전수수 혐의로 18.12월 직무정지, 18.12월 언론인 출신 오토 손넨홀츠너 부통령 취임
- 2018.3월 북부 콜롬비아와의 국경지대에서 경찰서 폭파, 순찰군인 및 일간지 기자 사망 등 콜롬비아 거점 마약밀매 무장테러 단체에 의한 치안문제 발생
- 2018년 9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이탈 주민이 에콰도르를 거쳐 인근국가로 유입(에콰도르는 약 25만 명 거주)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9.2월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으로 인해 IMF 등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102억 미불 차관 및 금융지원을 받는 것으로 발표

## III. 정 치



### III. 정 치

#### 1. 국체 및 정체

- 국체: 공화국
- 정체: 대통령 중심제
  - ※ 5부 체제: 헌법상 국가구조는 5부로 구성(헌법 제 118~269조)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시민참여사회통제위원회, 선거관리기구

#### 2. 행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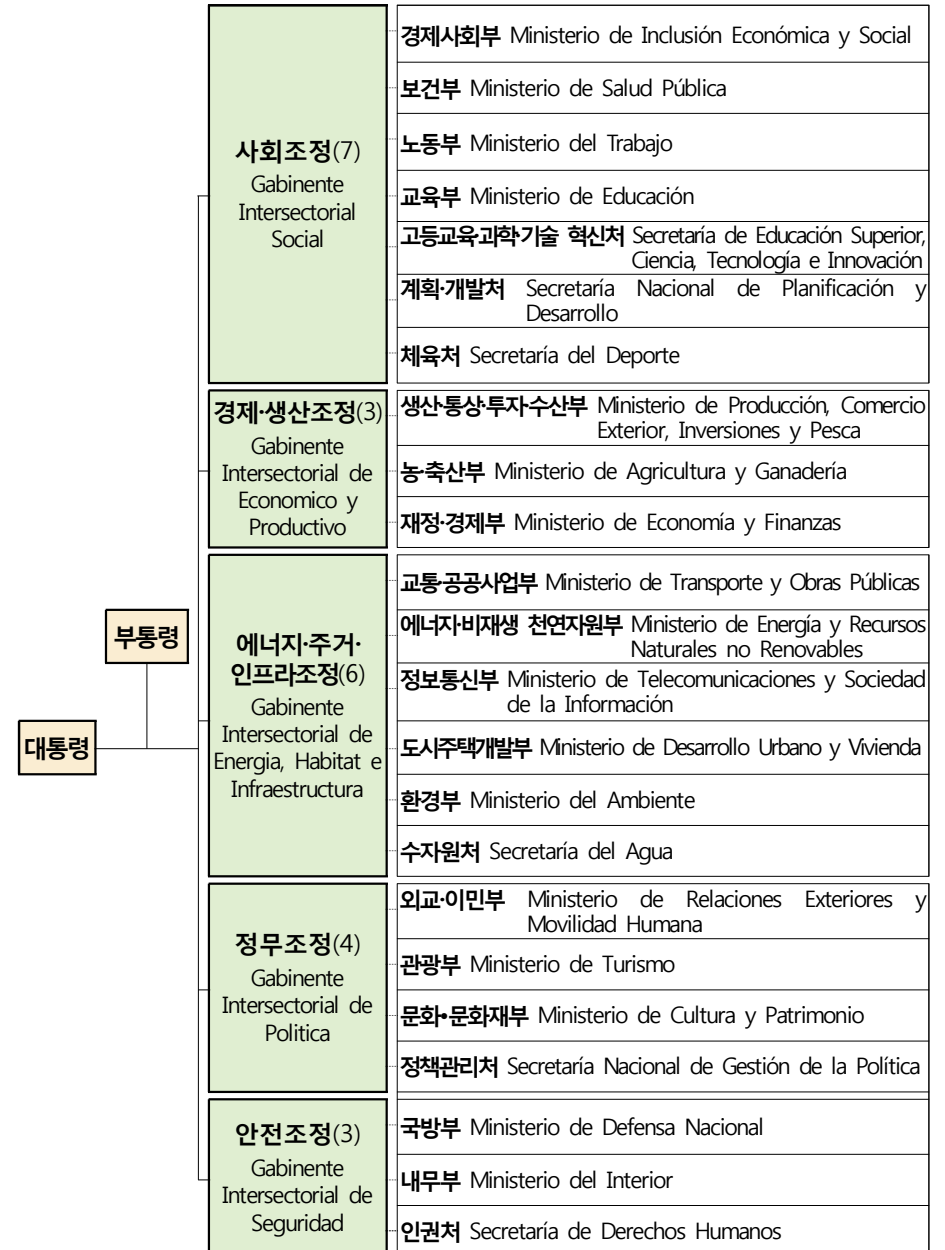
##### 가. 조직 및 주요 인사

- 대통령: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
  - 피선거권: 35세 이상의 에콰도르 출생 국민
  - 선거방법: 직접선거,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 또는 40% 이상 득표하고 2위와의 격차가 10% 이상일 경우 당선 확정, 그 외는 1, 2위간 결선투표 실시
  - 임기: 4년(중임 가능)
- 부통령: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선출
- 내각: 23명(17부 6처 /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료로 구성)
  - 국무회의 구성: 대통령 및 부통령 / 비서실장 / 특별수석 / 법률수석 / 기획개발수석 / 홍보수석 / 각 부처 장관 및 처장

##### 나. 주요인사

- 대통령: Lenín Moreno(2017.05.24 취임)
- 부통령: Otto Sonnenholzner (2018.12.11 취임)
- 외교장관: José Valencia(2018.06.11 취임)

#### 다. 정부부처



## 라. 지방행정구역

- 4개 지역(산간, 해안, 아마존, 섬) 24개 주(Provincias)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시(Canton), 구(Distrito) 및 농촌구(Parroquias Rurales)로 구분
-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권을 아래 9개 계획지역(Zonas de Planificación)으로 구분

계획지역	주(州)	주도(州都)
1	Esmeraldas	Esmeraldas
	Imbabura	Ibarra
	Carchi	Tulcán
	Sucumbíos	Nueva Loja
2	Pichincha	Quito
	Napo	Tena
	Orellana	Francisco De Orellana
3	Cotopaxi	Latacunga
	Tungurahua	Ambato
	Chimborazo	Riobamba
	Pastaza	Puyo
4	Manabí	Portoviejo
	Santo Domingo de los Tsáchilas	Santo Domingo
5	Santa Elena	Santa Elena
	Guayas	Guayaquil
	Los Ríos	Babahoyo
	Galápagos	Puerto Baquerizo Moreno
	Bolívar	Guaranda
6	Cañar	Azogues
	Azuay	Cuenca
	Morona Santiago	Macas
7	El Oro	Machala
	Loja	Loja
	Zamora Chinchipe	Zamora
8	Distrito Metropolitano de Guayaquil	과야킬(최대무역도시) 대도시권
9	Distrito Metropolitano de Quito	키토(수도) 대도시권

## 3. 입법부

### 가. 단원제(총 137석: 지역구 116석, 전국구 15석, 해외 6석)

- 임기: 4년(중임 가능)
- 전국구 15석: 특정한 지역구가 아닌 전국구로 입후보한 후보 중 투표로 선발
- 해외 6석: 해외 거주 국민 중 입후보하여 선발  
(아태·유럽, 미국·캐나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아프리카 각 2석)

### 나. 정당별<sup>1)</sup> 의석분포 및 특기사항 (2019.3.24. 기준)

정당명	의석수	비고
Movimiento Alianza PAIS, Patria Altiva I Soberana (AP) <sup>2)</sup>	43	- 당대표: Lenín Moreno(대통령) - 여당 - 창당년도: 2006 - 정치성향: 좌파
Movimiento CREO, Creando Oportunidades (CREO)	30	- 당대표: César Monge - 제1야당 - 창당년도: 2012 - 정치성향: 우파 - 지난 대선에서 모레노 대통령과 경합한 Guillermo Lasso 후보가 창당(舊 CREO, SUMA, PATRICIPA 연합당)
Partido Social Cristiano (PSC)	16	- 당대표: Pascual del Cioppo - 창당년도: 1951 - 정치성향: 중도우파 - 종교적 성향(기독교)
Movimiento de Unidad Plurinacional Pachakutik (Pachakutik)	5	- 당대표: Marlon Santi - 창당년도: 1995 - 정치성향: 좌파(Indigenismo; 원주민권리)
Partido Sociedad Patriótica "21 de Enero" (PSP)	2	- 당대표: Gilmar Gutiérrez - 창당년도: 2002 - 정치성향: 우파 - Lucio Gutiérrez가 2002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의회 탄핵으로 축출
Partido Fuerza EC (FE)	1	- 당대표: Dalo Bucaram - 창당년도: 2015 - 정치성향: 중도좌파 - Dalo Bucaram의 아버지인 Abdalá Bucaram(1996-97년 대통령 역임, 비리·부패로 탄핵)이 Partido Roldosista Ecuatoriano이 해산된 후 창당

Partido Izquierda Democrática (ID)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대표: Wilma Andrade</li> <li>- 창당년도: 1970</li> <li>- 정치성향: 중도좌파</li> <li>- Rodrigo Borja Cevallos가 1988-1992년 대통령을 역임으로 1980년대 주요 당, 1990년대 제2야당 유지</li> </ul>
기타 정치운동 <sup>3)</sup>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당년도: 2018</li> <li>- 정치성향: 좌파(사회주의)</li> <li>- 코레아 前 대통령 지지파들이 2018.1월 AP에서 분리 창당</li> <li>- Movimiento Revolución Ciudadana, Movimiento Revolución Alfarista라는 이름으로 정치운동(movimiento político)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CNE)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려 현재 공식 명칭이 부재</li> <li>- 2019년 지방선거에는 Movimiento Fuerza Compromiso Social을 통해 참여</li> </ul>
지역정당	4	-
무소속	6	-
<b>합 계</b>	<b>136<sup>4)</sup></b>	

<sup>1)</sup> 에콰도르의 정치조직(organizaciones políticas)은 정당(partidos políticos)과 정치운동(movimientos políticos)로 구분되는데, 두 조직형태 모두 모든 선거에 참여가 가능. 2018.12.17. 기준으로, 정당 8개, 전국단위 정치운동 15개, 주단위 정치운동 71개, 시단위 정치운동 164개, 구단위 정치운동 21개 등 총 279개의 정치조직이 선거관리위원회(CNE)에 등록.

<sup>2)</sup> 2017.2.19. 총선에서 여당 AP는 과반수인 74석을 획득했으나, 코레아 前대통령 지지파의 탈당으로 43석으로 축소

<sup>3)</sup> 2019년 지방선거에서 친 코레아 세력의 견재함을 확인, 정치운동 등록을 재시도하며 2021년 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

<sup>4)</sup> 2019.2월 Movimiento CREO의 Ana Galarza 의원이 비리 혐의로 제명되어 현재 136석

#### 다. 국회의장단(임기 2년): 의장, 부의장 2명,

- 의장: Elizabeth Cabezas(여당, AP)
  - ※ 2018.3월 해임된 Jose Serrano 국회의장 잔여 임기 승계
  - 제1부의장: Viviana Bonilla(무소속)
  - 제2부의장: Carlos Bergmann(여당, AP)
- ※ 외교위원장: Esther Cuesta(기타, 2018.9. 방한)
- ※ 에-한 의원친선협회장: Noralma Zambrano(여당, AP, 2017.9. 방한)

#### 라. 상임위원회: 13개

사법·국가구조 위원회	Comisión de Justicia y Estructura del Estado
노동자 권리·사회보장 위원회	Comisión de los Derechos de los Trabajadores y la Seguridad Social
경제·조세 규제관리 위원회	Comisión del Régimen Económico y Tributario y su Regulación y Control
생산적 경제개발·소기업 위원회	Comisión del Desarrollo Económico, Productivo y la Microempresa
주권·통합·국제관계·통합안보 위원회	Comisión de Soberanía, Integración, Relaciones Internacionales y Seguridad Integral
생물다양성·천연자원 위원회	Comisión de la Biodiversidad y Recursos Naturales
식량주권·농축수산업발전 위원회	Comisión de la Soberanía Alimentaria y Desarrollo del Sector Agropecuario y Pesquero
지방자치단체·지방분권·지역경쟁력 및 지역조직 위원회	Comisión de Gobiernos Autónomos, Descentralización, Competencias y Organización Territorial
교육·문화·과학기술 위원회	Comisión de Educación, Cultura y Ciencia y Tecnología
건강권 위원회	Comisión del Derecho a la Salud
시민참여·사회통제 위원회	Comisión de Participación Ciudadana y Control Social
집단권·공동체권·상호문화성 위원회	Comisión de los Derechos Colectivos, Comunitarios y la Interculturalidad
감사·정책관리 위원회	Comisión de Fiscalización y Control Político

### 4. 사법부

#### 가. 사법이사회(Consejo de Judicatura)

- 사법기관(Función Judicial)에 관한 사항을 심의·감독하고, 사법구조의 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정책 추진. 판사 및 사법기관 공무원들의 인사권(임명·채용·평가·징계 등) 등 사법부 최고 의결기관
- 위원장 및 4명의 위원 총 5명으로 구성, 임기 6년에 시민참여 사회통제 이사회에서 선출

#### 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3심제)

- 대법원: 대법원장과 21명의 판사(임기 9년, 매 3년 1/3씩 교체)로 구성
- 고등법원: 각 주에 1개씩 위치하며, 각 주별로 고등법원 판사 정원 상이

- 지방법원: 각 시(Cantón)별로 최소 1개의 지방법원(Tribunal)이 설치
- \* 지방법원 및 판사의 정원은 사법위원회(Consejo de la Judicatura)에서 결정

#### 다. 헌법재판소(Corte Constitucional)

-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으로 매 3년 1/3 교체

### 5. 시민참여사회통제위원회 및 선거관리기구

#### 가. 시민참여사회통제위원회(CPCCS: Consejo de Participación Ciudadana y Control Social)

- 시민참여에 관한 권리 이행을 촉진하고 공공 성격의 사안에 있어 통제 메커니즘을 규정
- 위원회는 임기의 7명의 정위원과 7명의 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위원 중에서 위원장 선출(임기 4년)
- 위원 선출은 2019년부터 국민투표로 선출

#### 나. 선거관리기구(Función Electoral)

- 선거관리기구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Consejo Nacional Electoral)와 선거법원(Tribunal Contencioso Electoral)으로 이원화
- 국가선거관리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으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임기 3년)
- 선거법원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

## IV. 군 사

## IV. 군 사

### 1. 국방정책 및 임무·목표

#### 가. 국방정책

- 국방부는 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군을 지휘하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
- 군의 역할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 기능이 최근 추가되면서 국가재난 등 유사시 군의 지원 활동을 중요시
- 군에서의 여성의 역할 증진 및 남녀평등 강조
- 페루, 콜롬비아 국경 지대 거주 국민의 권리, 자유 및 안전 보장 중시

#### 나. 임무·목표

- 국가 주권 및 영토 보호
- 국가 안보 및 지속가능한 국가 개발 지원
-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 기여
- 국군 작전능력 향상
- 국방 및 국군 행정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현
- 국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속가능한 경제 달성

### 2. 국방조직도 및 산하기관

#### 가. 조직도



### 나. 군사지휘

- 군 통수권자: Lenín Moreno 대통령
- 국방부 장관: Oswaldo Jarrín
- 합동참모의장: Roque Moreira
- 국방부 아래 국군합동참모부가 있고, 합동참모부 내에 육군·해군·공군 참모본부 소속

### 다. 국방 산하기관

- 우주연구소(Instituto Espacial Ecuatoriano)
- 군사지리연구소(Instituto Geográfico Militar)
- 남극연구소(Instituto Antártico Ecuatoriano)
- 해양학연구소(Instituto Oceanográfico de la Armada del Ecuador)

### 3. 군사력 및 국방비 : 총병력 46,000명

- 육군: 35,000명
- 공군: 3,000명
- 해군: 8,000명
- ※ 준 군사력: 경찰 44,000명
- 국방비: 14.6억불 (2019년)

### 4. 모병제도

- 장교: 각 군 사관학교 4년 수료 후 소위로 임관
- 사병: 2009년부터 의무복무제에서 지원병제로 전환
  - 지원자격: 18-22세 남자
  - 복무기간
    - 사병(지원병) : 6개월
    - 직업군인: 계급정년 없이 25년간 복무가능

### 5. 국방 장비 보유 현황(Global Fire Power 2017)

지상전력	(단위: 대)
Tanks(탱크)	232
Armored Fighting Vehicles(무장차량)	385
Self-Propelled Artillery(자주포)	12
Towed Artillery(견인포)	100
Rocket Projectors(로켓발사기)	18

○ 항공 전력

(단위: 대)

Fighters/Interceptors(전투기/요격기)	10
Fixed Wing Attack A/C(고정익 공격기)	10
Transport A/C(수송기)	69
Trainer A/C(훈련기)	49
Helicopters(헬리콥터)	45
Attack Helicopters(공격용 헬리콥터)	0

○ 해상 전력

(단위: 대)

Frigates(소형 구축함/호위함)	2
Destroyers(구축함)	0
Corvettes(초계함)	6
Submarines(잠수함)	2
Coastal Defense Craft(해안경비선)	3
Mine Warfare(기뢰함정)	0

## V. 국내정세

## V. 국내정세

### 1. 2017년 5월 이전까지의 국내정세

- 2005.4월 구티에레스 대통령의 탄핵으로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팔라시오 대통령은 광범위한 정치 개혁을 위해 제헌의회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지지 정당과 정치세력 미비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안이 2005.9월, 10월 의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각각 거부
- 팔라시오 대통령은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였지만 석유법 개정과 미국계 석유회사 OXY사 인수를 통한 재정 개선, 미국과의 FTA체결 보류 등 주요 정책들을 소신 있게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대정부 불만을 무마하고 2006년 선거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
- 2006.10월 대통령선거 시 무소속의 라파엘 코레아 후보가 1차 투표에서는 알바로 노보아 후보에 뒤진 2위를 차지하였으나, 11월 2차 결선투표에서 제헌의회 구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치개혁, 사회복지투자 확대, 대미 FTA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반대 등 공약을 내걸어 56.6% 득표로 당선
- 2007.1월 코레아 대통령은 취임후 대미 FTA 협상 중단, 적극적인 서민복지 확대 정책 및 제헌의회 구성을 통한 개헌 추진 등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
- 2007.3월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TSE) 호르헤 아코스타 위원장 교체 시도, 이에 반발한 위원회(TSE)의 국회의원 57명 제명 처리, 그리고 2007.4월 헌법재판소의 선거관리위원회(TSE)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처리의 위헌 결정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새 국회가 헌법재판관 전원을 해임하고 5월 헌법재판관을 신규 임명함으로써 일련의 사태가 일단락되고 정국 안정 회복
- 2007.9월 신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의회 선거에서 코레아 대통령의 Alianza PAIS가 총 의석수 130석 중 80석을 차지하여 정국 주도권을 장악
- 2008.9월 개헌안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1회 연임 허용, 석유·석탄·통신 분야의 국가 통제 강화, 통화정책 관리, 의회해산권 등이 포함되어 대통령 권한이 한층 강화된 신헌법안이 국민투표에서 63.9% 찬성으로 통과

- 2009.4월 신헌법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코레아 대통령은 1차 선거에서 51.9%의 지지를 얻어 재선, 이는 1차 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것은 30년만으로 코레아 대통령은 확고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대내외에 과시
- 의회선거에서는 총 124석 중에서 집권여당인 Alianza PAIS가 59석 확보에 그쳐, 언론법, 수자원법, 교육법, 석유법 등의 개정을 둘러싸고 유관단체의 시위와 의회 내 갈등 확대
- 2010년 코레아 대통령은 미진한 경제성장, 부정부패 고발, 국회의석 과반 미확보 등 국내외적 정치상황 악화로 지난 대선공약 및 신헌법에 명시된 약속 이행의 어려움에 직면
- 2010.9월 발생한 경찰 폭동사태로 안보장관 및 정보기관 책임자 교체 등 조치를 통해 국내 반대세력을 누르고 대통령의 친정체제를 구축
- 코레아 정부는 2011.5월 국정 10대 개혁안에 대한 국민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지지를 얻음에 따라 임기 후반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2013년 대선에 재도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에 대해 정국혼란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가중되면서 2013.2월 대선 1차 투표에서 코레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고, 총선에서는 여당이 전체 137석 중 100석을 얻는 대승을 거두어 제3기 코레아 정부의 개혁 정책을 위한 추동력 확보
- 2014.2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Alianza PAIS)은 총 221개 시장직 중 54명, 총 23개 주지사직 중 9명이 당선되는 데 그치고, 특히 에콰도르 5대 주요 도시(키토, 과야킬, 산토도밍고, 만다, 쿠엔카)에서는 모두 야당 후보가 당선
-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부진한 성적을 보이면서 3선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며, 같은 해 6월 정부 헌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헌법 개정 방식에 대한 심의가 진행
- 2014.10월 헌법재판소는 핵심 쟁점사항인 대통령 재선 횟수 제한 철폐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등에 대해 의회를 통한 개헌 방식을 승인한 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 헌법 개정안은 의회를 통과, 2015년 헌법 개정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연임제한 철폐

- 다만, 경과 규정을 두어 (차기 신정부가 출범하는) 2017.5월 이후부터 동 조항을 적용한다고 명시
- 상기 무제한 연임규정 외에도 △국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투표 청원권 축소, △언론 통제 강화(언론을 공공서비스로 규정), △공무원 노조 통제 강화, △보건·교육·사회보장·주거 관련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중앙정부 이관, △평시상태 군대의 국내 치안유지 작전 투입 등 규정을 새로 추가하여 언론, 노조, 지자체 등의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국내외 여론 비등
- 2016.4.16. 대지진(7.8 규모)으로 마나비, 에스메랄다스 주 등이 큰 피해를 입자 에과도르 정부는 정부 재정 악화를 해소하고 지진피해 복구 자금을 마련코자 증세 법안 2건(공공재정균형 기본법, 지진피해 연대 및 공동책임법)을 국회에서 긴급 의결·공포하였으며, 동 법안으로 외환 반출세, 맥주·담배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 불만 증가

## 2. 모레노 신정부 동향

- 2017.2월 대선에서는 10년간의 코레아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및 빈곤층의 지지와 현 정부의 조직적 선거운동에 힘입어 여당의 모레노 후보가 야당의 라소 후보를 접전 끝에 누르고 당선
- 2017.2월 같은 날 실시된 총선 결과 여당인 Alianza PAIS가 과반의석 확보(137석 중 74석)에 성공하여 안정적 정국운영의 발판을 마련(야당인 Creo-Suma 연합과 PSC는 각각 34석, 15석)
- 2017.5월 출범한 모레노 정부는 코레아 전 대통령 측근인 글라스 부통령을 브라질 오데브레시 건설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시키고, 코레아 前 대통령의 2021년 재출마 차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투표(2018.2월)에서 승리하여, 정부 여당 등 각계에 포진되어 있는 코레아 前 대통령 인맥 청산과 부패척결 및 투명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모레노 대통령은 2018.12월 비쿠나 부통령을 금전수수혐의로 사임시키고, 후임으로 정치경험이 없지만 참신한 언론인 출신 손넨홀츠너 부통령을 선임하였으며, 합참의장 및 3군 참모총장 등 교체를 통해 군부를 장악
- 코레아 前 정부가 남긴 대규모 국가 부채 해결,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난제를 안고 있는 모레노 대통령은 2021년 대선 불출마를 밝힌 바 있고, 선

거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에 따른 경제투명성과 기반 마련이 목표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대통령 지지도는 하향 추세

※ 2018.7월 조사 국정수행도 만족도 51.9%(Opinión Pública) 대비, 2018.11월 조사는 40.28%(Perfiles de Opinión)

- 2019.3.2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현 과야킬 시장 하이메 네בות이 이끄는 PSC가 8명의 주지사와 44명의 시장을 당선시키며 선전, 반면 여당인 AP는 한 명의 주지사도 당선이 안 되고 19개 중소도시 시장만 당선시켜 참패
- AP를 탈당한 코레아 전 대통령 지지세력을 흡수한 FCS의 경우, 피친차와 마나비 주지사를 당선시키며 코레아 지지세력이 건재함을 입증
- 원주민정당인 Pachakutik은 5명의 주지사와 18명의 시장을 배출하며 약진
-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CPCCS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CPCCS 위원이 국민투표로 선출



# VI. 대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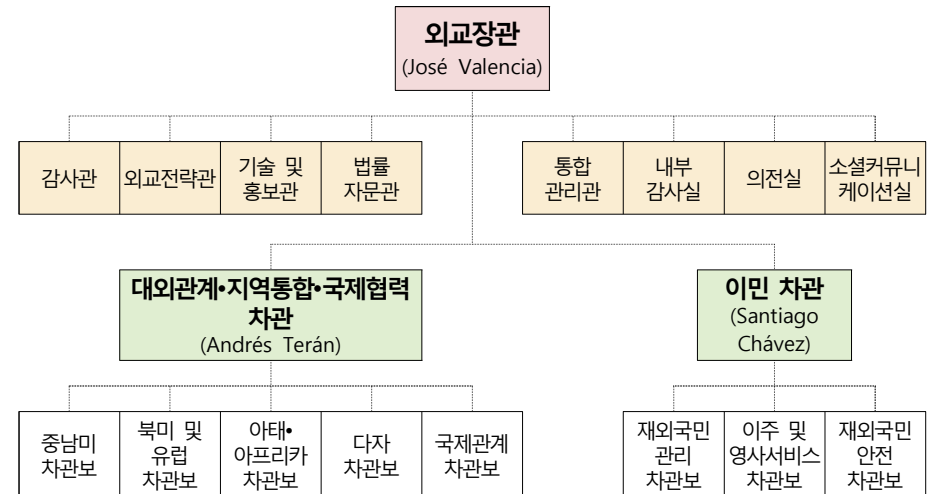
## VI. 대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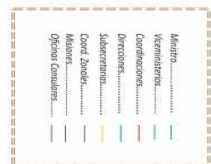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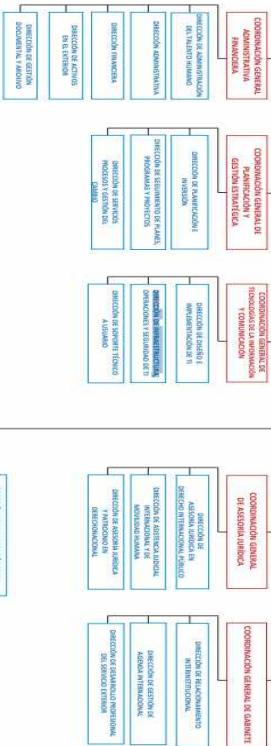
### 1. 대외정책 기조

- 기본 원칙
  - 국내문제 불간섭, 민족자결, 주권평등 등 국제법의 일반 원칙 준수
  - 분쟁의 평화적 해결
  -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배척
  - 영해 200마일 해양 주권 수호
  - 모든 종류의 핵 개발 반대, '핵무기 없는 세상' 지향
- 일반 정책
  - 상호 존중 및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세계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 수립
  - 다자주의(multilateralismo) 지향: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중남미 역내 통합 추진: 중남미 역내기구와의 협력 강화
  - 비동맹운동의 본래 목적 견지 (81.9.25 비동맹회원국 가입)

### 2. 외교조직 및 체제

가. 외교부 조직도 (출처: 에콰도르 외교부 홈페이지)





- 중남미 정책

- 36 –

-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및 코레아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볼리비아 모랄레스정부와도 불편한 관계 형성
- 2019.3월 모레노 대통령은 OAS에 대항하여 만든 연합체인 UNASUR(남미국가연합)에서 탈퇴한다고 선언, 역내 좌파국가와의 거리를 두는 대외관계 추진
- 베네수엘라 이민자 문제
  - 2018년 9월과 11월 키토에서 두 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 '키토선언(Declaración de Quito)'과 '키토 행동계획(Plan de Acción de Quito)'을 도출
  - '국제공여국회의(Mesa Internacional de Donantes)'를 에콰도르에서 개최, 중남미 지역에서의 베네수엘라 이민자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 재정확보 방안 논의

#### 4. 주요국과의 관계

##### 가. 미국

- 전통적으로 에콰도르는 우호 협력을 대외정책 기조로 하여 미국과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서 호혜협력을 추진하여 왔으나, 코레아 대통령은 2009년 만료된 미군의 만타 공군기지(대 마약작전용) 사용협정 갱신을 불허하고 대미 FTA협상에 반대하는 등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대미 정책을 추진
- 코레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 4국간 및 좌파성향의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라과이 등과 연대를 강화하여 미국에 비판적 입장 노정
- 2009.2월 에콰도르 정부는 내정간섭을 이유로 미국대사관 외교관 2명을 추방하여 양국 관계 악화
- 페루, 콜롬비아 주변국에 비해 작은 에콰도르의 지정학적 측면과 경제 실리면에서 대미관계의 악화는 에콰도르에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코레아 대통령은 집권기간 동안 반미, 반서방 기조 유지
- 미국은 에콰도르의 최대 수출 및 수입 대상국이며, 2013년 기준 45% 기록
- 2009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자 코레아 대통령이 양자관계 개선을 표명하면서 2009.6월 팔코니 외교장관 미국 방문, 2010.10월 클린턴 국무장관 에콰도르 방문으로 양자관계가 호전되는 듯 했으나, 2011.4월 코레아 대통령이 호지스 미국대사를 내정간섭 혐의로 추방하자 미 국무부도 가예고스 에콰도르대사를 맞추방하면서 양국관계는 다시 긴장국면에 돌입

- 2011.4월 폭로사이트 Wikileaks가 스페인 El País지에 호지스 미국대사의 전문(주재국 부패 만연 등의 부정적인 내용)을 게재하면서 양국간 대사 맞추방 조치 촉발
- 2011.10월 양국 대사 아그레망 부여 등 대사급 외교관계 재개 등이 있었으나, 미국 기밀문서 폭로 간첩죄 등으로 수배중인 어산지를 2012.6월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이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여 양국 관계 다시 악화
- 미국은 1991년부터 약 22년간 대미 수출품목에 관세혜택을 제공하였던 안데스 무역진흥법(ATPDEA)을 2013.7.31 종료
- 2014.1월 코레아 대통령은 에콰도르 주재 미군 과다와 미군의 사회 각계 침투 빌미로 미 안보협력사무소의 철수를 요청함에 따라, 2014.4월 에콰도르 주재 미국 안보협력사무소(군인 14명, 공무원 10명 총 24명)가 공식 철수
- 2014.4월 코레아 대통령 방미와 세계은행 차관 수용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동 조치로 관계 악화
- 2013년 안데스무역진흥법(ATPDEA) 종료와 더불어 미국과의 일반특혜무역제도(GSP)의 갱신여부도 불투명해 보였으나, 2017.5월 출범한 모레노 신정부는 좌파 이념에 치우친 대외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통해 2020.12.31.까지로 재연장
- 2018.6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에콰도르 방문으로 양국관계 재활성화 계기 마련
- 2018.11월 발렌시아 외교장관과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무역, 정치, 안보, 이주분야 등 관계 발전을 논의하는 등 양국관계 개선

##### 나. 페루

- 양국은 독립 이후 지속된 영토문제로 1995년 무력충돌까지 있었으나, 1998.10월 영구적 평화협정 체결
- 양국은 고위협의회(Comisión Binacional)를 구성하여 낙후지역인 접경지대 공동 개발 등 선린우호 및 실질협력 관계 발전 적극 추진
- 2011.6월 양국 해양경계를 확정하고, 국경협력 확대, 사회복지, 치안국방, 환경·에너지, 산업·교역, 인프라 등 협력 논의 지속
- 다만, 2017.6월 에콰도르가 양국 국경지대에 3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을 설치한 데 대해 페루 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양국 관계가 경색되기도 했으나, 2017.7월 에콰도르 정부의 공사 중지 발표로 진정

- 2018년 양국은 영구적 평화협정 서명 20주년 기념 학술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국경지대 주민들의 통합 및 복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2018.10월 페루 비스카라 대통령이 키토를 방문, 정상회담 및 제12차 합동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양국 연결(conectividad), 보건, 교육, 에너지 및 전기 협력사업, 안보, 국방 및 국제적 조직범죄 퇴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 논의

#### 다. 콜롬비아

- 전통적으로 우방 관계를 지속해 왔으나 2008.3월 콜롬비아군이 반군인 무장혁명군(FARC) 토벌을 위해 에콰도르 영토내 FARC 기지를 공격한 사건이 발생하자 코레아 대통령은 콜롬비아와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에콰도르 주재 콜롬비아대사 추방과 자국군의 콜롬비아 국경지역 배치 단행
- 국경 인접지역에서 콜롬비아 정부군과 좌익반군 간의 전투과정에서 콜롬비아 정부군의 월경, 반군을 피한 콜롬비아 난민 유입, 국경지역 마약재배 방지를 위한 콜롬비아의 제초제 살포로 인한 에콰도르 주민과 농작물 피해 문제 등이 양국 간 외교분쟁으로 발전
- 2010.11월 양국 정부는 외교관계 단절 상황 하에서 국경지역에서의 ‘안보협약’ 효력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양자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관계정상화에 노력해오다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화
- 2012.12월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국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 교육, 치안, 보건, 교통 등 8개 분야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적대 관계 해소와 전향적인 자세를 통한 양국 실질적 관계 개선 합의
- 콜롬비아는 에콰도르가 추진 중이던 EU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지원하고 에콰도르는 콜롬비아 2대 반군의 하나인 ELN과의 평화협상 중개자 역할을 맡는 등 양국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
- 2018. 2월 콜롬비아 페레이라(Pereira)에서 정상회담 및 제6차 합동각료회의를 가졌으며, 12월에는 키토에서 두케 신임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제7차 합동각료회의 개최
  - － 제7차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국경지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 교육, 환경, 문화 분야에 대한 중요 사안 합의

#### 라. 베네수엘라

- 코레아 대통령과 차베스 대통령 간 정치적 좌파 이념 공유 등 양국은 긴밀한 우호협력관계 유지

- － 2006.5월 에너지협력협정 체결, 베네수엘라석유공사(PDVSA)가 에콰도르의 원유를 수입하는 대신 에콰도르 측에 정제유 공급 합의
- － 2007.8월 양국은 에콰도르 북서부 만타 지역에 1일 처리능력 30만 배럴, 공사비 60억불 규모의 태평양정유공장(Refinería del Pacífico) 건설 양해각서 체결
- 2009.6월 코레아 대통령은 차베스 대통령이 주창한 ALBA(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에 가입, 셔틀 정상회의를 통해 에너지, 방산, 농업, 사회복지 및 인프라분야 등 협력 강화
  - － 3~6개월 단위 정례 셔틀 정상회담 개최
- 차베스 대통령 사후, 2013.7월 코레아 대통령은 마두로 신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좌파 이념 동반자로서 2017.5월 퇴임 시까지 긴밀한 우호협력관계 유지
- 2017.5월 모레노 신정부 출범 후, 2018.7월 에콰도르 대법원의 코레아 전 대통령 체포명령 관련 마두로 대통령의 코레아 전 대통령 옹호발언, 에콰도르 정부의 2018.8월 ALBA 탈퇴, 베네수엘라 모레노 대통령 모욕발언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대사 추방 등 양국관계 악화
- 모레노 정부는 2019.1.10. 마두로 대통령의 제2기 취임식에 대표단 미파견, 2019.1.23.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임시대통령으로 인정,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임명한 키토로 대사 신임장 사본 접수 등 마두로 정권을 베네수엘라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과이도 임시 대통령을 지지

#### 마. 칠레

-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995년 상품무역 특혜를 위한 양자 간 경제보완협정이 체결된 이래 경제·통상관계 지속 발전
- 2006.8월 칠레 대통령의 에콰도르 방문 시 석유, 해양수산, 관광, 마약, 문화, 과학·기술 등 상호협력 추진에 합의, 코레아 대통령은 2008년 칠레를 방문하여 신경제보완협정 등에 서명하여 양국 간 통상관계를 FTA 수준으로 격상 합의
- 2010년 칠레 피네라 대통령이 코레아 대통령에게 칠레-페루 간 해양경계 소송에 에콰도르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나, 에콰도르 정부는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결정을 번복하는 등 칠레 측에 실망감을 주기도 했으나, 양국은 경제 및 외교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모레노 신정부 출범 후 발렌시아 에콰도르 외교장관은 2018.8월 키토에서 에스피노사 칠레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투자, 전력망 연결사업, 광업, 외교관 교

육훈련 협력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합의

## 바. 볼리비아

- 안데스 공동체 일원 및 역내 약소국이라는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친밀감을 갖고 있으며 코레아 대통령은 모랄레스 대통령과 정치적 이념을 공유
  - 2017.5월 모레노 대통령 취임식시, 원주민 전통 지도자 계승식에 모랄레스 대통령이 동행하여 양국 정상간 친분 과시
- 그러나, 2018.7월 에콰도르 대법원의 코레아 전 대통령 체포명령 관련 모랄레스 대통령의 코레아 전 대통령 옹호발언에 대해 에콰도르 외교부 항의 성명 발표 이후 양국 관계 소원

## 사. 브라질

- 2008.11월 브라질 국책은행인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이 에콰도르에 제공한 320백만 불 경제협력 차관계약 불법 내용을 이유로 에콰도르 정부는 차관 이자 상환 거부 국제 중재소송 제기
  - 또한,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치(Odebrecht)의 수력 발전소 부실공사 의혹과 관련, 동 회사 직원 출국금지 조치와 사업장에 군 병력 투입하여 8억 달러 규모의 각종 시설물 접수
- 브라질 정부는 에콰도르 주재 자국 대사 소환, 기 합의한 BNDES의 261백만 달러의 금융지원 계획 중단 조치 발표
- 코레아 대통령의 MERCOSUR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방문(2008.12) 계기 룰라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하여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에콰도르 정부가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에 차관이자 지불기로 합의함으로써 관계가 회복되었으나, 에콰도르 사업 브라질 기업의 이탈 현상(Petrobras의 유전광구 매각 등)은 지속
- 지우마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관계는 정상화 되었고, 경제협력관계도 강화
- 2017.5월 모레노 신정부 출범 후 양국은 2018.8.17. 외교장관 간 제3차 정책협의회를 갖고 개발협력 사업 강화 및 양국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등에 대해 합의

## 아. 유럽연합

- 에콰도르는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유럽연합과의 다자무역협정(ACM, Acuerdo Comercial Multipartes)을 체결(에콰도르는 2017.1.1. 발효)하였으며,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국가와의 통상 확대에 기여
  - ※ 2018.6월 아이슬란드에서 에콰도르-EFTA 무역협정 체결(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 에콰도르는 많은 중남미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EU와의 쉥겐 비자 면제 협정 가입을 적극 추진

## 자. 대 아시아 관계

- **(중국)** 2009.11월 중국의 자칭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47억불 규모의 경제협력을 맺으면서 양국 교류가 진전되었으며, 2014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 무역적자 심화 등 재정난으로 대 중국 편중이 두드러졌고 2016.11.17. 시진핑 주석의 방문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 격상
  - 에콰도르는 2008년 채무불이행 선언을 통해 일시적으로 국가채무가 줄었으나, 국제신용도 하락으로 외국자본 유입이 어려워져 이후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차관을 들여오는 악순환 지속
- 모레노 대통령은 2018.12월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Asociación Estratégica Integral)’를 확인하고, 무역, 기술, 투자, 인적교류, 형사사법, 재정, 농업, 항공, 보건, 보안, 위험관리 분야 등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9억불의 차관을 확보
  - 이외 재건사업을 위해 중국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69.3백만불 규모 차관도 확보
- **(일본)** 양국 외교관계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8.8월 고노 일본 외무상이 에콰도르를 최초 방문하여 에콰도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2.7백만 불 무상원조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9월 모레노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70백만불 규모 에콰도르 전력공급 분야 유상원조 약정을 체결하고, 북한문제 관련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필요함을 정상간 확인
- **(러시아)** 이념적 유대를 바탕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산·무역 분야 등에서 협력관계를 유지(러시아는 에콰도르산 장미 1위 수입국)
  - 2018.11월 모스크바에서 외교차관 간 제3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통상, 경제협력, 과학, 기술, 교육 등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면서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
- **(카타르)** 2018.10월 알 타니 카타르 국왕의 에콰도르 공식방문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에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경제, 무역, 환경, 스포츠 분야 협력 약정에 서명하고 협력 증진 약속
  - 모레노 대통령은 카타르 국의 초청으로 2018.12월 도하 방문

#### 차. 국제 기구 및 중남미지역기구 관계

- **(UN)** 2018.9월 에콰도르 에스피노사 前 외교장관이 제73차 유엔총회 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적극 활동
- **(미주기구)** 코레아 정부의 반미좌파 성향으로 인해 미주기구(OAS)와 대립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모레노 정부 출범 후 에콰도르는 2018년 상임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미주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권보호 및 부패퇴치 활동 등을 위해 노력
- **(UNASUR)** 2019.3월 모레노 대통령은 UNASUR(남미국가연합) 탈퇴를 발표하고, 우파성향으로 콜롬비아와 칠레가 추진하고 있는 PROSUR 동참과 키토 소재 UNASUR 건물을 반환받아 원주민 대학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
- **(미주인권위원회)** 모레노 대통령 취임 후 인권보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18개의 인권관련 협약에 가입
- **(ALBA,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에콰도르는 2018.8월 탈퇴, 베네수엘라 대사 추방, 니카라과 사태 강경입장 고수, 볼리비아 모랄레스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 지속

## VII. 경 제

## VII. 경 제

### 1. 에콰도르 경제의 특징

#### 가. 중남미 7위의 경제 규모 (명목 GDP 기준)

- 중남미 33개국 중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칠레에 이어 7위
- 1인당 GDP는 2018년에 구매력(PPP) 기준 \$11,898로 중위권

#### 나. 전통적인 농수산업 중심 경제

- 1950년대까지 태평양 해안가에 주로 카카오를 재배·수출하였고, 이후 바나나가 제1 수출품목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새우 등 수산물의 수출 비중 확대
- 2017년 기준 농수산업 총생산은 GDP 비중의 9.3%수준이며, 수출액은 전체의 54.6% 점유

#### 다. 원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1967년 동부지역의 대규모 유전 발견으로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원유 생산 (OPEC 회원국)
  - 원유매장량은 88억 3천만 배럴(2016)로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어 3위이며, 일일 평균생산량은 52만 배럴(2018)로 남미 5위
- 광물자원은 금, 은, 동, 유연탄, 몰리브덴, 니켈, 아연 등이 상당량 매장 되어있고, 주로 금과 동에 대한 칠레, 캐나다 및 호주 등 외국기업에 의해 개발

#### 라. 미 달러화 사용 경제(Dollarization)

- 2000.1월 미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채택, 물가 안정 및 이를 통한 소득 구매력 유지 등에 성공
- 그러나, 자국 통화정책 실시가 어려우므로, 국제유가 하락 및 미 달러화 강세 등 외부 충격 시 대응책이 제한적
  - 최근 정부 재정적자 확대 및 유동성 부족 현상 지속

### 2. 코레아 정부 경제정책 평가(2007.1 - 2017.5)

-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이 7번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은 가운데 좌파 세력을 규합하여 출범한 코레아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서민·근로자 지원, 에너지·자원 개발의 국가주도, 국내 제조업 육성, 신자유주의 배경 및 보호무역주의 등을 강하게 추진

- 2008년 9월 제정된 신헌법에 따라 에너지·자원, 전력, 환경 등 분야에서 국가의 관여가 확대

※ 에콰도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지속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1990년대 말 최악의 금융위기로 인해, 2000년 자국화폐인 Sucre를 폐기하고 미국 달러화를 공식화폐로 지정

- 코레아 정부는 최초로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l Desarrollo)'을 수립하고 국가개발기획처(SENPLADES) 등을 창설하여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입각한 경제개발을 추진
  - 이 계획에 따라 △공공 투자 및 사회 인프라 확충, △장애인 복지 개선 및 의무 채용,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의무 가입, △빈곤층 생활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
- 자연자원 개발에 대한 국유화 정책과 근로자 권익 보호 정책(기업 순이익의 15% 근로자 의무 배당)을 실시하여, 해외 자본의 직접투자 감소, 투자 기업과의 소송, 투자 기업의 철수 현상 등 부작용 발생
  - 특히, 석유부문에서 외국기업의 철수(Occidental, Petrobras 등) 및 소송(Perenco, Texaco 등) 빈발
  - 세계은행 발표(2016년) '사업하기 좋은 국가(Doing Business)' 순위 189개국 중 117위를 차지해 전년대비 3단계 하락
- 코레아 정부 직전인 2006년 에콰도르 원유생산은 민간기업이 전체 생산량의 54%, 국영기업이 46%였으나, 2016년에는 국영기업(Petroamazonas)이 79%, 민간기업 21% 생산으로 역전
  - 원유생산의 국유화는 국가재정 확충이 목적이었으며, 실제 2011년에는 원유수출을 통해 67억불의 재정수입을 확보하였으나, 국제유가가 하락한 2016년에는 15.5억불에 불과
  - 재정수입 충당을 위한 원유 '입도선매'를 통해 2009-16년간 100억불의 수입을 올리고, 80억불의 차관을 들어올 수 있었으나, 대신 2024년까지 원유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등 문제점 상존
-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구조 변혁(Cambio de la Matriz Productiva)'을 기치로 내세우며 제조업 육성에 노력
  - 도로, 공항, 항만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제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끌어올려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전반적 평가

- 제조업 육성과 더불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수력, 풍력 발전소 도입을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7개의 수력발전소와 비요나코 풍력발전소 등 건설
- 보호무역 정책을 취해 높은 수입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통해 국산품 소비 촉진과 국내 산업 보호 노력
  - 미 달러화 사용으로, 통화 정책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셰이프가드, 수입쿼터 등 적극적인 보호무역 조치
- 국내 제조업 육성 및 수입 억제를 위한 코레아 정부의 노력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가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달러화 강세로 자국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면서 난항에 직면
- 코레아 정부는 2008.11월 외채 약 100억불의 약 38%에 해당하는 3개 글로벌 본드 중 32억불에 상당하는 2개에 대해, 계약이 자국헌법 조항에 불합치하다는 이유로 지불 중단을 선언
  - 2009.6월 해당 본드를 65% 할인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총 외채 감소 및 국내 지지도 상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외적으로는 국제신용도 하락으로 신규 외자 도입에 어려움 직면
- 코레아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에콰도르 정부와 외국기업 간 마찰이 자주 발생, 대표 사례로는 미 셰브론(Chevron)사와의 분쟁이며 2016.7월 에콰도르가 셰브론사에 9,600만불을 배상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
  - 미 셰브론사와의 분쟁은 석유탐사사업에 대한 비용 미지급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로 20여년간 지속되었으며, 헤이그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한 주재국의 항소 및 네덜란드 대법원 확정 판결(14.9월), 주재국의 미 지방항소법원 제소 및 패소 판결(15.8월), 이후 미 연방대법원 확정판결(16.6월)로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가 종료
  - 2017.5월 코레아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외국인 투자자 분쟁 발생시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조항이 포함된 16개국과의 양자투자협정(BIT)을 일방적으로 폐기
- ※ 폐기 결정의 주된 이유로 BIT에 규정된 분쟁 발생 시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조항이 에콰도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고, 재협상을 통한 새로운 BIT에서는 분쟁 발생시 국제중재재판소가 아닌 자국 내 또는 중남미 내 재판소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 3. 모레노 정부 경제정책(2017.5 - )

- 2017.5월 출범한 모레노 정부는 경제부문에서 코레아 前 정부의 국가주도형 좌파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친시장적 자유주의 경제기조를 표방
  - 에콰도르 경제는 2014년 말부터 국제유가 하락, 수출 감소, 재정적자 누적 등으로 2016년에 -1.7% 성장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
  - ※ 모레노 대통령은 2017.7월 공공채무가 GDP의 42%인 419억불로, 코레아 前 정부가 구체적 상환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차관을 들여와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하였다면서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
- 2017.8월 신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방향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통상관계 강화(수출증진), 관광산업 진흥, 에콰도르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등 4대 정책 강조
  - 기존 무역협정 활용 및 신규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특히 미국, 러시아, 한국, 터키 4개국과의 통상관계 강화를 적극 추진
- 2017.10월 경제 활성화 및 정부재정 확보를 위해 △세제 개편,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긴축재정 실시, △외국인투자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법 시행 등을 포함한 경제 개혁안을 발표
- 2018년 상반기에 양자투자협정(BIT) 새 표준 문안을 발표
- 모레노 대통령은 2018.4월 경제정책 4대 기조로 △국가재정 정상화, △정부규모 축소, △국제수지 균형(수출 및 투자유치 확대), △민간부문 생산진흥을 발표
  - 경제개혁 특별법인 생산진흥법(Ley de Fomento Productivo, 2018.8월 발효) 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 4. 최근 경제동향

- 최우선 경제과제인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축소를 위한 노력 지속
  - 코레아 前 정부 10년간 과도한 확대재정과 차관도입으로 정부 재정적자는 2017년에 GDP 대비 약 6%였고, 공공부채는 GDP의 약 45%\*을 기록
  - ※ 사회보장청(IESS)부채 포함시, GDP 대비 91% 수준(약 900억불)
  - 정부 재정적자는 긴축재정 및 세수확대 정책으로 2018년 GDP 대비 약 3%로 단기적 하향세를 보였으며, 공공부채는 2018년 GDP 대비 약 47%, 2023년 약 52%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정부 입장에서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하나, 경기를 위축시켜서는 안 되는 부담도 공존하고 있는바, 유류 보조금을 대폭 감축한 것이 긴축재정의 대표적 사례인 반면, 수출업자 세금면제 등 수출·생산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



※ 2018.2월 에콰도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7개 국제기구와 102억불 금융지원에 합의하였다고 발표

- 에콰도르 경제는 단기간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저성장 기조는 지속
  - 2016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2017년 유가 회복 및 수출 호조로 경제성장을 2.4%를 실현하며 회복세로 돌입
  - 그러나, 정부지출(특히, 자본재투자) 축소 및 세계 경제사이클 전환 등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은 1.2%를 기록하였고, 2019년에도 유사한 수준에서 1%대 (IMF 1.1%, WB 1.6%, CEPAL\* 1%) 내외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CEPAL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베네수엘라(-10%), 아르헨티나(-1.8%)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 중 최저 수치
- 달러화 강세 기조속에서 2018년 **인플레이션**은 0.5%, 2019년 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가회복 및 광물 수출 호조 등에 따른 수출 증가로 2019년에도 무역 수지는 흑자 예상
- 미국·EU와의 관계 복구로 교역 확대를 추진 중이고, 여타 역내외 국가들과도 통상투자 협력관계 증진을 모색
  - 서방과의 관계 회복에 노력 중인 에콰도르는,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2018.11월 통상투자협의회(TIC)를 9년만에 워싱턴에서 개최
  - ※ 에콰도르는 일반특혜관세(2020.12월 종료)를 대신하는 무역협정 체결 희망
  - 2017.1월 발효된 EU와의 무역협정으로 에콰도르 생산품의 EU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 EU와의 관계가 활성화될 전망
  - 역내외 국가들과 양자투자·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통상투자 협력관계 확대를 모색 중이며,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캐나다 및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투자협정 또는 무역협정 체결 논의
- 에콰도르는 수출이 GDP의 약 30%를 차지, 원유 및 농수산물 중심의 한 수출 경제부문이 여타 경제부문보다 발전
  - 수출: 216억 달러 (2018년, 중앙은행 기준)
    - \* 주요 수출품: 원유, 새우 등 수산물, 바나나, 화훼, 카카오
    - \* 수출 상대국: 미국, EU국가, 콜롬비아, 페루, 중국 등
  - 수입: 231억 달러 (2018년, 중앙은행 기준)
    - \* 주요 수입품: 정제유(경유, 휘발유), 자동차, 의약품, 천연가스
    - \* 수입 상대국: 미국, EU, 중국,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등

## 5. 주요 거시경제 지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GDP(US\$ 십억)	106.8	100.4	103.0	104.2
GDP 성장률(%)	1.5	-1.6	3.0	1.2
1인당 GDP(US\$)	6,460	5,929	6,143	6,217
인플레이션(%)	3.5	1.1	-0.2	-0.3
재정적자(GDP대비 %)	2.1	5.2	4.5	3.0
무역수지(US\$백만)	-2,130	1,247	91	-1,587
수출(US\$백만)	18,330	16,797	19,122	21,606
수입(US\$백만)	20,460	15,550	19,031	23,193
경상수지(US\$백만)*	-2.819	-2.189	-0.248	-
외환보유액(US\$백만)	2,495	4,258	2,451	2,676

\* 출처: 에콰도르 중앙은행 및 재정경제부, 세계은행(WB)\* 자료

## 6. 에너지·자원 현황

### 가. 에너지·자원 개관

- 에콰도르는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은 원유매장량 3위 국가이나 생산량은 5위로서 생산량 증가 가능성이 큰 편이며, 현 정부는 코레아 前 정부의 국가주도형 석유개발에서 전환하여 민간자본 참여 비중 확대에 노력
- 광물자원 관련, 금, 은, 동, 유연탄, 몰리브덴, 니켈, 아연 등 금속광물과, 석회석, 고령토, 화산회토, 정석, 규석, 경석, 인산염 등 비금속 광물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부차원의 정확한 매장량은 미확인
  - 보유 광물 중 가장 중요한 자원은 금과 동으로 현재 다양한 탐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 2008년부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극대화를 위해 수력·풍력·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다변화를 추진
  - 코레아 정부 때부터 시행해온 에너지 산업구조 전환(Cambio de la Matriz Energética) 정책을 통해 에콰도르 생산 전력에너지의 85%는 청정에너지 자원 및 재생에너지

## 나. 에너지원별 자원 보유 현황

### (1) 석유

- 원유 확인 매장량은 약 80억 배럴로,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은 3위이며, 세계 순위는 19위
  - 2016.8월 석유부는 야수니 국립공원 ITT지역(Ishpingo, Tambococha, Tiputini)에 9억 5천만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
- 에콰도르 일일 원유 생산량은 1959년 385,000배럴에서 2006년 538,000배럴로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세계 경기 침체, 정제시설 노후화 등으로 2007년부터 감소하여 2010년 생산량은 486,000배럴까지 감소세를 기록.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광구개발 및 생산설비 투자 등으로 생산량이 2014년 557,000 배럴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OPEC 감산 합의로 인해 점차 감소

### ○ 일일 원유 생산량(B/D)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석유 (천배럴)	511	505	487	486	500	504	526	557	543	548	531	519

\* 출처 : 석유부 및 중앙은행

### (2) 광물자원

- 가장 중요한 광물자원은 금과 동이며, 주요 생산지역은 엘오로, 아수아이, 사모라 친치페 주 등 페루 국경 인접 남부지역으로, 최근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 정부는 금, 은, 동의 매장량을 약 300억불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광물이 지표면과 낮은 지하에 매장되어 있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 사모라 친치페주에는 동 약 6,500억 파운드, 은 2,600만 온스, 금 320만 온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모라 친치페주의 광물개발 Mirador 프로젝트를 중국계기업 Ecuacorriente S.A.가 진행
- 최근 에콰도르광산공사(Enami)는 6,500만톤 석회석 매장을 발표하고, 약 1,100톤이 매장되어 있는 사모라 친치페주 광산 개발 프로젝트(Isimanchi)를 추진

### (3) 신재생에너지

- 화력에서 수력발전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에너지 산업구조 전환 정책의 영향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등 수입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
- 에콰도르 생산 신재생에너지는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가 있으며, 이 중 수력발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전력기관에 따르면, 수력발전소 62개, 태양광발전소(광전지에너지 포함) 28개,

풍력발전소 3개, 바이오매스 발전소 3개, 바이오가스 발전소 1개 보유(2016년 기준)

### ○ 재생에너지별 정격출력량(2017년)

구분	수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총 출력량
정격출력(MW)	4,515.96	144.30	26.48	21.15	7.26	4,715.15

\* 출처: 에콰도르 전력관리청 ARCONEL(2017 Estadística Anual y Multianual del Sector Eléctrico Ecuatoriano)

## 7. 통상 정책

### 가. 무역 협정

- 모레노 현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관계 개선에 적극적이며, 수출 증대와 관광산업 진흥을 목표로 주요 경제블록 및 관심국가들과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 코레아 전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CELAC(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 UNASUR(남미국가연합) 등 역내 지역통합을 위한 기구 설립 등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경제적으로는 다자간 협정 체결에 미온적으로 양자간 경제협력협정 또는 관세협정 체결을 선호하는 입장 견지
  - 또한, 신자유주의를 선진국 중심의 경제논리로 보고 이를 배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소극적이었으며, 무역협정은 자국의 시장개방을 최소화하고 유치산업을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주재국 산업화를 위해 필요·최소한으로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 다만, 콜롬비아, 페루 등 여타 중남미국가가 역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에콰도르 역시 수출증대 및 산업육성을 위해 무역협정 체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실정

### 나.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추진 현황

- EU의 특혜관세 종료가 다가오면서 EU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6.11월 협정이 체결되어 2017.1월부터 발효
- 2018.6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무역협정을 체결(2020년 발효)하였으며, 미국, 브라질, 터키,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과 무역협정 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7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협상 대상국으로 결정
  - 에-칠레 경제보완협정 체결(1994.12)
  - 에-멕시코 부분무역협정 체결(2003.2)

- CAN-MERCOSUR 경제보완협정 체결(2004.10)
- 미국에 기존의 FTA가 아닌 개발을 위한 무역협정(ACD) 제의(2009.6)
- 에-EU 무역협정 체결(2016.11)
- 에-엘살바도르 부분무역협정 체결(2017.2)
- 에-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무역협정 체결(2018.6)

#### 다.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추진

-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던 코레아 전 대통령의 방한(2010.9월)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전자통관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
- 2015.8월 양국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한-에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으며, 이는 에콰도르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무역협정 가능성
  - 2016.1월, 3월, 8월, 10월, 11월 5차례 걸쳐 협상 진행
  - 2017년 들어 양국 정부 교체 등으로 협상 지연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인 반면,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새우 등으로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향후 무역협정 체결 시 양국간 교역 증대 효과 기대

## 8. 주요 경제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 가. 정부기관

- 재정경제부: <https://www.finanzas.gob.ec/>
  - 각종 경제정보 제공
  - 장관: Richard Martínez Alvarado
- 중앙은행: <https://www.bce.fin.ec/>
  - 금융정보/통계, 경제현황, 무역수출입현황, 환율변동정보 제공
  - 은행장: Verónica Artola Jarrín
- 조달처(하위기관 조달절차 대행): <http://www.contratacionobras.gob.ec/>
  - 처장: Johe Jaramillo Hurtado
- 공공조달국(상위기관 조달절차 대행): <https://portal.compraspublicas.gob.ec/sercop/>
  - 국장: Silvana Vallejo Páez
- 통계청(INEC): <http://www.ecuadorencifras.gob.ec/institucional/home/>
  - 인구, 교육수준 등 각종 통계 제공
  - 청장: Roberto Castillo

- 기술표준원(INEN): <http://www.normalizacion.gob.ec/>
  - 기술 규제 현황, 품질인증 등 수입규제 관련 정보 제공
  - 원장: César Díaz Guevara

### 나. 경제 단체

- 키토 상업회의소(CCQ): <https://www.ccq.ec/>
  - 무역정보, 시장조사, 각종 경제 세미나 정보 등
- 과야킬 상업회의소(CCG): <http://www.lacamara.org/website/>
  - 기업 정보, 각종 무역 통계 등
- 쿠엔카 상업회의소(CCC): <http://www.cccuenca.com.ec>
  - 기업정보, 지역 시장정보 등

# VIII. 사회 및 문화

## VIII. 사회 및 문화

### 1. 사회의 특징

- 다인종 국가: 메스티소 71.9%, 인디오 7.0%, 흑인 7.2%, 유럽계 6.1%, 몬투비오(해안지역) 7.4%, 기타 0.4% (INEC, 2010)
  - ※ 태평양연안, 안데스산지, 아마존지역 등 확연히 구별되는 **지리적 특성** 및 인디오 원주민, 스페인 등 유럽 이주민, 메스티소, 흑인 등 **인종적 특성**과 더운 해안지역과 서늘한 산간지역의 **경제활동 차이**로 인해 다양한 기질 특이성을 보이는 사회
- 부의 불균형
  - 계층별, 지역별 빈부격차가 높은 국가로, 2000년대 지니계수가 0.6으로 높았으나 2017년 0.4까지 감소 (CIA World Factbook)
  - 빈곤층은 국가 전체인구의 25%, 극빈층은 9% (INEC, 2018)
  - 빈곤층 다수 지역(지니계수 0.5 이상)으로는 볼리바르(Bolivar), 카르치(Carchi), 침보라소(Chimborazo), 로하(Loja), 피친차(Pichincha), 아마조니아(Amazonia) 주 등 중북부 해안, 중남부 고원 및 아마존 지역에 집중
  - 왜소 성장 및 영양실조는 원주민에게서 주로 발견
    - ※ 아동 노동률: 5-11세 (4.2%), 12-14세 (11.9%), 15-17세 (15.7%)
- 산악 내륙지방의 경우, 우리의 계 및 두레와 같은 상호부조(Minga) 풍습 유지
- ‘중남미 SNS 사용 통계조사’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페이스북 69%, 트위터 14%, 왓츠앱 71% 사용(중남미 평균 상회)

### 2. 풍속 및 문화

#### 가. 의식주 생활

- 도시 거주인은 서양식 의복을 착용하나 고원 산악지대의 인디오들은 손으로 직접 짠 전통의상 애용
- 음식 주재료는 옥수수, 감자, 쌀, 바나나(Platano) 등으로, 해안가에서는 주로 생선, 새우 등에 코코넛과 우유를 곁들인 ‘엔코카도(Encocado)’와 같은 해산물 요리를 즐기고, 내륙고원지역은 튀긴 돼지고기, 찐 감자, 옥수수, 바나나가 함께 나오는 ‘프리타다(Fritada)’ 선호
- 전통주류로는 Puntas(사탕수수 증류주)와 Canelazo(Aguardiente에 계피 첨가)를 즐겨 마시며, 파인애플 Chicha와 남쪽 지방 전통주인 Horchata(28개 약초 함유)가 있고, Guaranda 지방의 Pajaro Azul(아니스, 닭 육수 및 오렌지잎 첨가) 등이 유명

- 유선방송: CableTV, DirecTV, Univisa 등

#### 4. 교육제도

- 초등학교: 6년, 의무교육, 무상
- 중고등학교: 6년
- 대학: 전공에 따라 4-5년
- 전체 문맹률: 5.48%(2015년)

#### 5. 공휴일 및 주요 축제

##### 가. 공휴일

- |             |                  |
|-------------|------------------|
| ○ 1.1       | 신년               |
| ○ 2월 중      | 카니발              |
| ○ 4.14-4.16 | 부활절              |
| ○ 5.1       | 노동절              |
| ○ 5.24      | Pichincha 전투 기념일 |
| ○ 8.10      | 독립기념일            |
| ○ 10.9      | 과야킬 독립 기념일       |
| ○ 11.2-11.3 | 망자의날/쿠엔카 독립 기념일  |
| ○ 12.6      | 키토 창립일           |
| ○ 12.25     | 성탄절              |

##### 나. 주요 축제

- 볼리바르 과란다 지방 카니발: 부, 형, 지식을 상징하는 Taita Carnaval 신(50개 다양한 색상의 띠를 두르고 거대 모자를 쓴 신)을 위해 2-3월 개최
- 인티 라이미(Inti Raymi) 축제: 키추아어로 '태양의 축제'를 의미하며 태양신을 모시는 축제. 잉카족 전통으로 페루와 에콰도르 지역에서 동지 시기인 6월 24일 개최
- 야모르 축제(Fiesta del Yamor): 8월말에서 9월 초 오타발로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 오타발로의 수호자인 몬세라트 성모마리아와 파차마마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취지로 7가지 옥수수로 만든 전통음료인 야모르 혹은 치차(Chicha)를 음복
- 마마 네그라(Mama Negra) 축제: 라타쿤가(Latacunga) 지역에서 9월과 11월에 원주민, 스페인, 아프리카 문화를 상징하는 축제

#### 6. 주요 문화재 및 관광지

- 키토 역사지구(Centro Histórico)
  - 키토는 중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로, 1979년 유네스코 세계 10대 문화유산도시로 지정

#### 나. 가족제도

- 농어촌 사회로 노인 공경 등 대가족 제도 풍습이 상존
- 가족중심 사회활동을 많이 하며, 가톨릭과 인디오 전통 민속 축제가 유명

#### 다. 새해풍습

- 새해에는 가족모두 함께 모여 식사하고, 스페인에서 유래된 종이 인형 태우기 관습 지속
- 키토, 암바토 등 산악지역 주민들은 해안가로 여행

#### 라. 문화

- 15세기 잉카제국 문화의 영향과 스페인 식민시대의 가톨릭 문화가 혼재, 현재까지도 키추아어, 슈아르어 등 다수의 인디오 언어를 사용
- 수도 키토는 스페인 식민시대의 건축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 197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에콰도르 제3의 도시인 쿠엔카 역사지구도 1999년 문화유산으로 지정

### 3. 주요일간지 및 방송매체 정보

#### 가. 주요일간지

- El Comercio(중도 보수): 창간 1906
- El Universo(중도 보수): 창간 1921
- El Telégrafo(진보 좌파): 창간1884
- Últimas Noticias(중도): 창간1938
- La Hora(보수): 창간1982

#### 나. 라디오 및 TV방송국

- 라디오
  - 지방별 소규모 방송국이 대부분
  - 음악전문 방송국과 대담전문 방송국 구분
- TV
  - 공영 방송: Ecuador TV, Gamavisión, TC Televisión
  - 민영방송: Teleamazonas, Ecuavisa, Canal Uno, RTS, Telerama, Telecentro, Ormar Televisión

- 19세기 이전에 건축된 구시가지내 모든 건물들은 문화유산으로 등록
- 대통령궁과 독립광장(Carondelet, Plaza Grande)
  - 대통령 궁은 원래 궁의 주인이었던 Carondelet 가문의 이름을 따서 카론델렛 궁이라고도 부름
  - 황금실(접견실)의 화려한 장식으로 유명
  - 왼편에는 대통령 집무실, 오른편에는 대성당 위치
  - 궁 정면의 테라스는 09:00-17:00 간 대중에 개방
  - 독립광장 중앙에는 독립 투쟁 애국자 추모 영웅탑 위치
- 산 프란시스코 성당(Iglesia San Francisco)
  - 남미 最高·最大 수도원(1535년 건설)
  - 성당 제대부분은 원주민이 금, 은보다 귀하게 여긴 거울로 장식
  - 성당 천장, 기둥은 무데하르 양식\*
  - 나중에 장식이 들어간 제대 부분들은 식민지 시대의 바로크 양식으로 조성
  - ※ 그리스도교와 아랍식 기하학 양식의 혼합
- 예수회 성당(Iglesia Compañía de Jesús)
  - 예수회가 원주민에게 하늘나라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금박으로 장식해 건립 (1587년 건설)
  - 부속건물인 학교는 現 국립 센트럴대학의 전신
- 적도탑(Mitad del Mundo)
  - 1936년 프랑스 측지단이 에콰도르 도착 200주년을 기념하고자 적도선 상에 기념탑을 축조
  - 2000년대 인공위성 GPS로 정확한 적도선을 측정한 결과, 이보다 200m 정도 떨어진 인디오 신전이 있던 곳이 적도선임을 확인
- 적도박물관 (Museo Solar Intiñan)
  - 매년 춘·추분 정오에 그림자가 사라지며 만유인력의 약화로 인한 무풍지대 등 현상이 나타남
  - 적도선에서 발생하는 현상(물의 회전 방향이 적도선을 중심으로 바뀌는 현상, 날계란 세우기 등) 확인 가능
  - 인디오들의 신전이 있던 곳에 세운 박물관으로 GPS상 00.00.00인 적도선이 위치

- 갈라파고스 제도
  - 500만 년 전 화산폭발로 형성된 군도로 1835년 찰스 다윈이 방문하여 『종의 기원』 저술의 배경이 됨
  - 공식 명칭은 ‘콜럼버스 제도(Archipiélago de Colón)’로 갈라파고스라는 애칭은 거북이 많은 것에서 연유
  - 1964년 찰스 다윈 연구소가 설립되어 거북이, 이구아나 등 멸종위기 종 보호를 위해 노력
  - 갈라파고스에는 지구상에 서식하는 14종의 거북이 중 11종이 남아 있는데 섬마다 종이 다른 거북이 서식
  - 조류, 선인장, 이구아나 등 모두 섬의 생태 환경에 따라 진화가 상이
  - 현재 세계 최고의 자연 생태학습장이며 국립공원으로 보호. 자국민이라 할지라도 갈라파고스 태생 원주민이 아니거나 갈라파고스 영주권이 없으면 3개월 이상 체류 불가능

## 7. 스포츠

-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축구로서 바르셀로나(Barcelona)와 리가데키토(Liga de Quito) 등의 구단이 유명
- 테니스, 농구, 배구도 인기 있으며, 특히 각 3명이 높은 망을 치고 경기하는 에콰볼레이(Ecuavoley)라는 배구스타일 운동이 독특

# IX. 한·에콰도르 관계

## IX. 한·에콰도르 관계

### 1. 대 한반도 정책

- 우리나라와 전통적 우호친선관계 유지
  - 한반도 문제 관련, 북한 핵개발 반대 및 당사자 간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방안 지지
-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경제·통상·투자 협력관계 증진 희망

### 2. 양국관계 특기사항

- 반미 좌파성향의 前 코레아 대통령(2007-17)은 2010.9월 방한 이후 에콰도르 경제발전의 모델국가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였고, 우리나라도 2009-13 인프라·자원 외교 대상국으로 2009-13년 간 에콰도르 진출 확대
- 2018.5월 출범 모레노 신정부는 우리나라와의 SECA 협상 재개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제의 등 무역 및 투자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에콰도르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로 인한 자원부족과 외국투자 유치 제도보완 장기화 등으로 우리기업 진출이 줄고 있으나, 고위인사 교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한유학생 증가 등 제반교류는 활발하게 진행
  - ※ 2019.2월 에콰도르 정부는 IMF 등과 102억불 금융지원 합의로 외국기업 투자, 민관협력사업(PPP) 등 확대 예정
- 2011.9월 부통령으로서 비공식 방한한바 있는 모레노 現 대통령 또한 지속적으로 한국을 에콰도르 국가발전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

### 3. 외교관계 연표

- 국교 수립: 1962.10.5
- 한국 측
  - 1963.1.23. 정일권 주미대사 초대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74.3.15. 상주 대사관 설치

○ 역대 공관장

- 1974.3 김상규 대사 대리
- 1975.1 박창남 대사 대리
- 1978.8 제1대 장위돈 대사 신임장 제정
- 1979.10 제2대 이기주 대사 신임장 제정
- 1981.1 제3대 김이명 대사 신임장 제정
- 1984.4 제4대 윤태현 대사 신임장 제정
- 1987.3 제5대 황영재 대사 신임장 제정
- 1989.6 제6대 정해웅 대사 신임장 제정
- 1993.1 제7대 오채기 대사 신임장 제정
- 1996.2 제8대 조용하 대사 신임장 제정
- 1998.5 제9대 성필주 대사 신임장 제정
- 2001.2 제10대 남상욱 대사 신임장 제정
- 2003.7 제11대 심국웅 대사 신임장 제정
- 2005.10 제12대 김경석 대사 신임장 제정
- 2008.10 제13대 장근호 대사 신임장 제정
- 2011.5 제14대 정인균 대사 신임장 제정
- 2015.4 제15대 이은철 대사 신임장 제정
- 2018.5 제16대 이영근 대사 신임장 제정

○ 에콰도르 측

- 1963.5 Gustavo Larrea 초대 경임대사 신임장 제정
- 1981.6 주한 상주 대사관 설치
- 2007.7 9대 주한 대사 José Núñez Tamayo 신임장 제정
- 2011.2 10대 주한 대사 Nicolás Trujillo Newlin 신임장 제정
- 2015.2 11대 주한 대사 Óscar Gustavo Herrera Gilbert 신임장 제정

○ 양국 명예영사

- 1968.10.21 곤살로 엔드리카 에스피노사 과야킬 주재 대한민국 명예총영사 임명 (69.12.15 해임)
- 1971.3.8 로베르토 이사이아 다숨 과야킬 주재 대한민국 명예영사 임명(73.7.2 방한, 75.2.4 의원면직, 75.12.5 재임명)
- 1971.3.3 김석원 쌍용그룹회장 서울 주재 에콰도르 명예영사 임명
- 1983.3.1 테레사 레예스 과야킬 주재 대한민국 명예부영사 임명
- 1984.3 장원석 덕수물산 사장 서울 주재 에콰도르 명예영사 임명
- 1994.5 이복형 대사 주한 에콰도르 명예영사 임명(95.6 사임)
- 1995.9.26 로베르토 이사이아 명예영사, 명예총영사로 승진(2000.12.4 종료)
- 1997.11.29 남중훈 남화건설 사장 부산 주재 에콰도르 명예영사 임명

- 2000.12.4 기예르모 라소 멘도사 과야킬 주재 대한민국 명예영사 임명 (2006.7 종료)
- 2006.7 김영대 대성그룹회장 서울 주재 에콰도르 명예영사 임명
- 2007.7 미겔 페레스 키타로 에콰도르 설탕 제조협회 회장 과야킬 주재 대한민국 명예영사 임명
- 2012.1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 대전 주재 에콰도르 명예영사 임명
- 2013.7 루이스 초니요 과야킬 주재 대한민국 명예영사 임명(18.8.7 해임)

#### 4. 주요인사 교류

##### 가. 방문

- 2003.1 김정길 특사 방문(Gutiérrez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04.4 김석현 KOICA 당대표 방문(라하스 모자보건소 개원식)
- 2004.8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 방문(파나마대통령취임식 특사 방문 경유)
- 2006.6 세계관광기구 집행이사회 관련 도영심 대사 방문
- 2007.1 문재인 특사 방문(코레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07.7 김항경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사절단장 방문
- 2007.12 박진현 관세청차장 방문(세관협력회의 및 IT설명회 개최)
- 2007.12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방문(에너지자원 협력 MOU 서명)
- 2008.1 신장범 KOICA 당대표 방문
- 2009.3 장시정 KOICA 이사 방문(KOICA-AGECI 간 협력 MOU 서명)
- 2009.8 진수희 특사, 이정현 의원 방문(코레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10.4 신각수 외교부차관 방문
- 2010.6 이상득 의원 방문(민관자원협력 사절단)
- 2010.9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문
- 2011.1 정창수 국토해양부 차관 방문
- 2011.7 이상득 특사 방문(에너지자원협력 특사)
- 2011.10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방문
- 2012.10 김규현 외교부 차관보 방문
- 2013.2 이종우 중앙선관위 수석대표 방문
- 2013.3 이재오 의원 방문(IPU 대표단)
- 2013.5 강석호 특사 방문(코레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14.8 정의화 국회의장 방문
- 2015.1 진영 한-에 의원친선협회장 방문
- 2015.1 이진복 의원 방문(제23차 APPF 총회 참석 국회대표단장)
- 2015.2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방문
- 2015.3 신원섭 산림청장 방문
- 2015.5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방문



- 2015.7 박병석 한-중남미 협력포럼 공동대표 방문(협력포럼 의원단)
- 2015.7 코트라 김재홍 사장 방문
- 2016.8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 방문
- 2016.11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방문(UN HabitatIII 한국대표단장)
- 2017.5 박영선 특사, 조승래 의원 방문(모레노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18.9 이현재, 오제세, 전해숙, 이상돈 의원(한-에 의원친선협회) 방문

## 나. 방한

- 2002.3 Gustavo Noboa 대통령 방한
- 2004.5 Aníbal Borbúa Bohórquez 대통령실 사회개발 투자기금(FISE) 이사장 방한
- 2005.9 Víctor Hugo 센트랄 대학 총장 방한
- 2006.3 Armando Rodas 대통령 비서실 차장(이후 재경부장관 역임) 방한
- 2006.9 Raúl Samaniego 국영해운회사(Flopec) 사장
- 2006.10 Diego Rivadeneira 외교차관 방한
- 2007.9 Rafael Paredes 외교차관 방한
- 2007.9 Ricardo Estrada 무역투자진흥공사(CORPEI) 사장 방한
- 2007.10 Paco Moncayo 키토시장 방한
- 2008.8 José Valencia 외교차관 방한
- 2000.9 Derlis Palacios 광업석유장관 방한
- 2009.6 Luis Jaramillo 에콰도르 석유공사 사장 방한
- 2009.11 Germánico Pinto 비재생천연자원부장관 방한
- 2010.4 Jorge Glas 전략분야조정장관 방한
- 2010.5 Miguel Calahorrano 전력재생에너지부장관 방한
- 2010.5 Jaime Guerrero 정보통신부장관 방한
- 2010.5 José Cisneros 국영광물공사 사장 방한
- 2010.9. Rafael Correa 대통령 방한(수행: Ricardo Patino 외교부 장관, Jorge Glas 전략조정부 장관, Miguel Calahorrano 전력재생에너지부장관, Natalie Cely 생산고용조정부 장관, Maria Fernanda Espinosa 문화유산조정부 장관, Marcela Aginaga 환경부 장관, Jaime Guerrero 정보통신부 장관, René Ramírez 국가개발기획처 장관 등)
- 2010.12 Solís Valarezo 도시개발주택부장관 방한
- 2011.5 Guerrero 통신부장관 방한
- 2011.5 Marco Calvopina 에콰도르 석유공사 사장 방한
- 2011.6 Rafael Quintero 외교부 양자차관보 방한
- 2011.5 Jaime Guerrero 정보통신부장관 방한
- 2011.9 Lenín Moreno 부통령 비공식 방한

- René Ramírez Gallego 국가개발기획 장관 방한
- 2012.8 Erica Sylva 문화부장관 방한
- 2013.6 Ricardo Patino 외교장관 방한
- 2014.7 Ricardo Patino 외교장관 방한
- 2015.3 Fausto Herrera 재무장관 방한
- 2015.5 Augusto Espinoza 교육장관 방한
- 2015.8 Natalie Cely 생산고용조정부 장관 방한
- 2015.8 Diego Aulestia 대외무역부 장관 방한
- 2016.4 Juan Francisco Rumbela 산업생산성부 차관 방한
- 2016.7 Rafael Poveda 전략조정부 장관 방한
- 2016.7 Juan Carlos Cassinelli 대외무역부 장관 방한
- 2017.8 Lourdes Puma 외교부 아태차관보 방한
- 2017.9 Noralma Zambrano 에-한 의원친선협회장 방한
- 2017.12 Pablo Campana 대외무역부 장관 방한
- 2018.8 Eva García 산업생산성부 장관 방한
- 2018.9 Esther Cuesta 국회 외교위원장 방한
- 2018.10 Carlos Cornejo 해군참모총장 방한
- 2018.12 Andrés de la Vega 내무부차관 방한
- 2018.12 Silvana Vallejo 조달처장 방한
- 2019.3 Maduro Intriago 에너지·비재생천연자원부 전력부문 차관 방한

## 다. 한-에콰도르 의원친선협회 (2019.1월 기준)

- 회장: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 부회장: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 이사: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 전해숙 의원(더불어민주당)
-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 라. 에콰도르-한 의원친선협회 (2018.9월 기준)

- 회 장: Noralma Zambrano Castro 의원(AP)
- 간 사: Carlos Cambala Montece 의원(AP)
- 회 원: Zoila Benavidez Zambrano 의원(AP)
- Alberto Zambrano Chacha 의원(AP)
- Israel Cruz Proano 의원(Cambio)
- Feliz Fernando Burbano 의원(CREO)

## 마. 한·에콰도르 문화친선협회

- 1975년 결성
- 회 장: Faisal Antonio Misle
- 사무총장: Oswaldo Torres
- 회 원: 약 20여 명

#### 바. KOICA 연수생 동창회

- 2006.12 결성
- 회원: 약 900여 명

### 5. 협정 및 조약

- 1983.3.28.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 1984.5.2. 어업 협정
- 1985.5.14. 문화 협정
- 1986.5.29. 외교관, 관용 사증면제 협정
- 2003.4.28. EDCF 차관 협정
- 2005.9.7. 한-에 한국해외봉사단 파견 협정
- 2012.10.8. 한-에과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2013.10.16. 발효)
- 2012.12.17. 한-에과도르 항공협정(2015.11.23. 발효)
- 2014.9.3. 한-에과도르 무상원조 기본 협정(2016.1.18. 발효)

### 6. 기관간 약정 및 양해각서(MOU)

- 2001.3. 한-에 외교부간 태평양연안 협력 MOU
- 2002.3. KOTRA-에 무역투자진흥공사(CORPEI) MOU
- 2007.12. 지식경제부-에 광업석유부 자원협력 MOU
- 2008.7. 한-에 외교부간 차관급 정책협의회 설립 MOU
- 2008.11. 한전-에 전력부 협력 MOU
- 2009.3. KOICA-에 국제협력처(AGECI) MOU
- 2009.7. 한-OLADE 인턴 파견 약정
- 2010.1. 한-에과도르 방산군수 협력 MOU
- 2010.2. 한-에과도르 전자세관 협력 MOU
- 2010.6. 광물자원공사-에 국영광물공사 협력 LOA
- 2010.9. 한-에과도르 정보통신 협력 약정
- 2010.9. 한-에과도르 환경 협력 MOU
- 2010.9.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및 싱글원도 구축 사업 협력 MOU
- 2010.9. 지식경제부-에 전력재생에너지부 협력 MOU
- 2010.9. 한국석유공사-에 비재생천연자원부 석유 협력 MOU
- 2010.9. 한국수입협회-에 수출투자진흥청 MOU

- 2010.9. 한국전파진흥원-에 통신감독원 MOU
- 2010.10. 남동발전-에 전력공사 수력·화력 분야 협력 MOU
- 2010.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국가개발기획처 MOU
- 2011.1. 한국주택토지공사-에 도시개발주택부 협력 MOU
- 2011.7. 기재부-에 재무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MOU
- 2011.7. 디지털병원수출조합(KOHEA)-에 사회보장청(IESS) MOU
- 2011.7. IT서비스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연합회 협력 MOU
- 2011.7. 극지연구소-에 남극연구소 협력 MOU
- 2011.10. 한-에과도르 교육과학기술 협력 MOU
- 2012.2. 한-에과도르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 2012.3. 한-에과도르 농업기술 협력(KOPIA센터 설치) MOU
- 2012.6. 한-에과도르 산림협력 MOU
- 2012.6. 남동발전-에 전력공사 전력효율화 안보프로젝트 MOU
- 2012.9. KOTRA-에 ProEcuador 협력 MOU
- 2012.11. 한-에과도르 수산물 위생 약정
- 2013.1. 기재부-에 국가개발기획처 협력 MOU
- 2013.1. 남동발전-에 전력공사 사업추진 MOU
- 2013.3. 한-에 농진청간 협력 MOU
- 2013.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고등교육과학기술부 MOU
- 2013.6. 양국 외교부간 태평양연안 협력 MOU 개정
- 2013.6. 한-에 국세청간 협력 MOU
- 2013.7. 산토도밍고시 하수도확장사업 기본 약정
- 2013.9. 한-에과도르 보건협력 MOU
- 2013.9. 고려제약-에 의약품구매공사 의약품 구매 협약
- 2013.10. 대교협-에 고등교육과학기술부 교육협력 MOU
- 2013.11. 보건산업진흥원-에 의약품구매공사 협력 MOU
- 2014.2. KOICA 해외봉사단원 안전강화 MOU
- 2014.3. 한-에과도르 건설인프라 협력 MOU
- 2014.3. 한-에과도르 도시주택 협력 MOU
- 2014.3. 한-에과도르 보건규제기관(보건부-식약처)간 협력 MOU
- 2014.6. 한-에과도르 전자정부 협력 MOU
- 2014.9. 한-에과도르 체육 협력 MOU
- 2015.5.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야차이개발공사 협력 MOU
- 2015.7. KOTRA-에 생산고용조정부 무역투자역량강화 협력 MOU
- 2015.8. 국립특수교육원-에 교육부 특수교육 국제교류 MOU
- 2016.3. 한전-에 생산고용조정부 에너지신산업기술 협력 MOU
- 2016.7. 한-에과도르 국방 협력 MOU
- 2017.2. 중앙선관위-에 중앙선관위 협력 MOU

- 2018.3. 한-에과도르 방산군수협력 MOU 개정

## 7. 한-에과도르 양자 협의체

### 가. 한-에과도르 공동위

- 제4차 공동위 개최(키토, 2010.7)
- 제5차 공동위 개최(서울, 2012.4)
- 제6차 공동위 개최(키토, 2018.3)

### 나. 고위정책협의회

- 2008.8월 설립
- 2011.6 제1차 고위정책협의회 개최(서울)
- 2012.10 제2차 고위정책협의회 개최(키토)
- 2015.2 제3차 고위정책협의회 개최(키토)

### 다. 한-에과도르 문화공동위

- 제1차 문화공동위 개최(서울, 2009.8)

### 라. 한-에과도르 에너지자원협력위

- 제1차 자원협력위 개최(키토, 2008.11)

### 마. 한-에과도르 방산·군수공동위

- 2010.1월 설립
- 2011.11월 방산군수분야 협력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 8. 무상원조

### 가. KOICA 무상협력

#### (1) 지원개요

##### (가) 연혁

- 1991년 KOICA 본부 창립, 에과도르 지원 시작
- 2005년 KOICA-에과도르 봉사단사업협정 체결 및 봉사단파견 시작
- 2009년 KOICA 에과도르 사무소 개소

##### (나) 지원 방향

- 에과도르 정부의 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지역개발 등 우선순위 분야를 양자협력사업 및 글로벌사업을 통해 지원

- 우리 대사관 및 에과도르 정부 내 무상원조 총괄기관인 외교부와 긴밀한 정책 대화를 통해 에과도르 국가개발계획\*을 적극 반영한 사업 발굴, 지원

#### \* 에과도르 정부 국가개발계획

- 2013-2017년(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 : 친환경적 개발, 개인의 권리·자유 보장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의 공정사회 구축
- 2017-2021년(Plan Nacional de Desarrollo: Toda Una Vida) : 모든 국민의 일생을 위한 계획, 일생동안의 권리 보장

#### (다) 지원 규모

- 1991-2019년간 약 8,330만불 규모 지원

연도	'91-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잠정)	'19 (계획)	계
지원액 (만불)	791	439	349	403	416	699	904	772	711	791	789	814	452	8,330

#### < 사업유형별 지원내역 (1991-2019) >

사업유형	사업 내용 (사업기간 / 지원규모)
국별협력사업 (9건)	에과도르 외교부 행정전산망지원사업('96-'97/33.96만불)
	에과도르 모자보건소 건립사업('01-'05/56.03만불)
	산로렌소시 기초보건의료서비스 강화사업('07-'08/102.58만불)
	에과도르 과야스주 ICT 훈련센터 건립('07-'08/104.95만불)
	에과도르 침보라소주 관개수로 건설 및 영농기술 지원('08-'11/226.81만불)
	에과도르 갈라파고스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10-'16/1,010만불)
	에과도르 개표결과 전송시스템 선진화 지원사업('16-'17/133만불)
	에과도르 침보라소주 관개수로건설 및 영농기술지원 2차 사업('14-'18/200만불)
	에과도르 과야스주 보건의료센터 건립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14-'19/582만불)

사업유형	사업 내용 (사업기간 / 지원규모)
국제기구협력사업	WFP 에콰도르 빈곤계층 식량안보 지원사업('16-'18/300만불)
민관협력사업	에콰도르 페드로카르보 취약계층 아동교육 및 마을보건사업(2단계)('17-'19/1,234백만원)
소규모무상원조	276.42만불 - 차량(앰블런스, 소방차, 의전차량 등) - 외교부 피난난민사업 지원 30만불('08)
긴급구호	108.76만불 - 홍수피해 긴급지원 10만불('08) - 에콰도르 대지진 긴급구호 활동 10만불('16) - 에콰도르 대지진 현금·현물 지원 845백만원('16)
연수생초청	927명 - 국별연수 378명, 석사학위과정 83명, 다국가연수 466명
해외봉사단	461명 - KOICA 봉사단원 410명 - KOICA 자문단 17명, NIPA 자문단 33명, 과학기술지원단 1명 - 봉사단 현장사업 99건 223.6만불

## (2) 사업별 세부 지원현황

### (가) 국별협력사업

-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10-'16/1,010만불)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통한 지역 전력부족 문제 해소 및 수원국의 자연친화적 전력공급 정책기반 마련
수원기관	○ 갈라파고스 전력청(ELECGALAPAGOS)
사업지역	○ 갈라파고스 산타크루즈섬
사업성과	○ 태양광발전소 건립 및 '18년 10월 말 기준 약 175만kWh 전력 생산 (약 941톤의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효과) ○ KOICA 홍보관 설립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 - 유명 관광지(Tortuga Bay) 입구에 설립, 주 5일 운영, 무료입장 - 방문자수 : 총 24,706명 (2018년 10월 말 기준) ○ KOICA 훈련센터 설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인력 훈련 - 훈련 참가자수 : 총 1,608명 (2018년 10월 말 기준)

- 개표결과 전송시스템 선진화 지원 사업('16-'17/120만불)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선거개표결과와 신속한 전송을 위한 “개표결과전송단말기” 보급을 통해 선거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 및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정착과 굿-거버넌스 확립 기여 ○ 에콰도르 선거위원회(CNE) 선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기술지원을 통해서 ICT 선거 수행 역량 강화 ○ 개도국의 선거분야 ICT 도입 지원과 ODA 취지에 적합한 국내 ICT 기술의 해외 전파 가능한 win-win형 ODA사업 추진
수원기관	○ 에콰도르 선거위원회(CNE)
사업지역	○ 에콰도르 키토
사업성과	○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결과 전송단말기 1,850대 지원 및 선거관리요원 96명, 운영요원 2,000명 훈련 ○ 개표결과 전송단말기 프로그램 운영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지원으로 수원기관 자립적 기기운영관리 역량 확보 지원

- 침보라소주 관개수로 건설 및 영농기술지원 2차 사업('14-'18/200만불)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농업용수 관리기술 및 영농기술 전수를 통한 지역농민의 생산성 향상 ○ 사업지역 농민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수원기관	○ 에콰도르 침보라소(Chimborazo) 주정부
사업지역	○ 에콰도르 침보라소(Chimborazo)주 Las Abras 지역
사업성과	○ 관개수로 신설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 ○ 사업지역 농민의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 마을기금 기관(소액금융센터) 설립을 통한 금융서비스 향상

○ 과야스주 보건의료센터 건립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14-'19/ 582만불)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란시 주민의 기초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 예방교육 실시 및 생활 습관병 예방관리</li> <li>○ 보건의료센터 의료인력 역량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li> </ul>
수원기관	○ 에콰도르 보건부
사업지역	○ 과야스주 두란시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센터 건립</li> <li>○ 두란시 고혈압, 당뇨병, 뎅기, 치쿤구니아 지카바이러스 예방교육</li> <li>○ 건강증진 캠페인</li> </ul>

(나) 국제기구 협력 사업

○ WFP 에콰도르 빈곤계층 식량안보 지원사업('16-'18/300만불)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 에콰도르 내 난민 대상 영양공급 및 역량강화 활동 등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 및 영양 개선에 기여
협력 기관	○ 세계식량기구(WFP/World Food Programme)
지 역	○ 에콰도르 북부 국경 근접지역 (Esmeraldas, Carchi, Sucumbíos, Imbabura, Pichincha, Santo Domingo)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식품 섭취를 통한 취약계층 영양상태 개선</li> <li>○ 식량안보 관련 관계자 역량강화 도모</li> <li>○ 소규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li> <li>○ 지역 농민 소득증대 및 시장경쟁력 향상</li> </ul>

(다) 민관협력 사업

○ 페드로카르보 취약계층 아동교육 및 마을보건사업 2단계('17-'19/1,234백만원)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 장애아동의 교육 및 사회복귀, 주민 질병퇴치 및 예방
협력 기관	○ 사단법인 나눔인터내셔널
지 역	○ 에콰도르 과야스주 페드로카르보
사업 성과	○ 장애아동 인권과 교육을 통한 재활기회 확대에 기여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마을 보건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 의식 및 건강제고</li> <li>○ 취약계층 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에 기여</li> <li>○ 주민질병퇴치 및 예방</li> </ul>

(라) 연수생초청 사업

○ 총 초청 인원 : 927명

- 국별연수 378명, 석사학위과정 83명, 다국가연수 466명

○ 주요 국별연수 내역 (2016-2018년)

연 도	연 수 사 업	기 관	인 원
2016	에콰도르 통계조사기획역량 중점관리	에콰도르 중앙은행(Banco Central del Ecuador)	15
		통계청(INEC)	
		국가개발기획처(SENPLADES)	
	에콰도르 교통환경 개선 및 안전확보 능력 관리 과정	교통국(ANT)	15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AMT)	
		키토시청 교통공사(EPMTQP)	
		에콰도르 교통위원회(CTE)	
		Loja시청(GADM LOJA)	
		건설교통사업부(MTOP)	
	에콰도르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능력관리 과정	보건관리감독기관(ARCSA)	14
		산업생산성부(MIPRO)	
	에콰도르 중등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정	교육부(Ministerio de Educación)	15
2017	에콰도르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능력관리 과정	보건관리감독기관(ARCSA)	15
	에콰도르 중등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정	교육부(Ministerio de Educación)	18
2018	에콰도르 중등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Ministerio de Educación)	20

	정책 과정	교육과정평가원(INEVAL)	19
		고등과학기술부(SENESCYT)	
		교육기관(Unidades Educativas)	
	에콰도르 도시 고품 폐자원 관리	아마존 및 갈라파고스 자치단체 협회(COMAGA)	
		에콰도르 시청 연합(AME)	
		아마존 지역 시청(Municipios Amazónicos)	
		산크리토발 시청(Municipio San Cristóbal)	

○ 석사학위과정

- 대학(인원) : 서울대(6), 고려대(6), KAIST(6), 성균관대(6), 이화여대(5),  
아주대(5), 연세대(4), KDI(4), 한동대(4), 경희대(3) 등
- 분야(인원) : 국제관계(15), 공공행정 및 정책(13), 재정(9), 경제정책(8),  
농업(8), 개발협력(6), ICT(5), 전자정부(3), 기업가정신(3),  
국제통상(3), 수자원(3), 에너지정책(2), 도시개발(2), 보건(1),  
교육(1), 무역(1) 등

(3) KOICA 에콰도르 사무소 2019년도 사업계획 : 452만불 규모

사업유형	사 업 명
국별협력사업	에콰도르 과야스주 보건의료센터 건립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 사업('14-'19/582만불 中 76만불)
국별연수 (25명)	에콰도르 도시 고품 폐자원 관리 15명
	에콰도르 교통안전 역량강화 10명
석사학위연수 (미정)	국내 다수대학 석사학위과정 지원(20명 내외 합격 예상)
다국가연수 (16명)	재해방지 조기경보 및 대응시스템 관리 활용능력 향상 2명
	농업협동조합 역량 강화 2명
	석유 및 대체연료 품질관리 역량강화 2명
	창의·발명교육 교원 양성 3명
	해양정책개발 및 항만행정 역량강화 2명

사업유형	사 업 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기질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 역량강 화(중남미) 3명
	(한국어) 한국어문화 전문가 양성-중급 1명
	(한국어) 한국어 교사 양성 및 능력 배양-고급 1명
해외봉사단 (연평균 50명 활동규모)	WFK KOICA 일반봉사단 파견사업(KOICA) 36명
	WFK KOICA자문단 파견사업(KOICA) 3명
	WFK NIPA자문단 파견사업(NIPA) 8명
	WFK 과학기술지원단 파견사업(NRF) 1명
	KOICA 다자협력전문가(KMCO) 1명
민관협력사업	에콰도르 페드로카르보 취약계층 아동교육 및 마을보건사업 2 단계('17-'19/1,234백만원 中 31만불)

나. 기타 무상협력 현황

- 에콰도르 대지진(2016.4월) 복구 관련 인도적 지원
  - 규모: 70만불(50만불 양자지원, 20만불 WFP를 통한 지원)
  - 의료물자(60만불 상당) 기증 등 민간기업·NGO·개인 원조를 포함시 총  
298만불 지원
- 무상원조 물자기증
  - 2016.5월 제네시스 2대, 투싼 1대 기증(10만불 상당)
  - 2016.9월 주재국 우정공사에 사랑의 그린PC 200대 기증
  - 2008.4월 의전차량 6대, 컴퓨터, 치과장비 기증(20만불 상당)
- 에콰도르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협력사업
  - 사업목적: KOPIA 에콰도르센터를 중심으로 에콰도르 농업연구청(INIAP)과  
공동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에콰도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종 개량  
및 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중장기적 농업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이미지 제고 및 양국 관계 증진 도모
  - 주요 추진사업
    - 소면적 채소재배 농가를 위한 채소생산기술 연구(2014.3-2016.7)
    - 자동화 온실에서 씨감자 생산기술 개발에 의한 대량생산 기술보급  
(2015.12-2017.12)

- 아보카도 생산 촉진을 위해 고품질 접목묘 생산 방법 개발(2015.12-2018.12)
- 무병씨감자 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업 (2018.1-2018.12)
- 한국 버 품종 및 재배기술 도입을 통한 소농가의 버 생산성 향상 (2019.1-2021.12)
- 감자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범마을 조성(2019.1-2021.12)
- 현지 맞춤형 옥수수 재배기술 개발(2019.1-2021.12)
- 고산지대에서 보리와 밀 지속재배를 위한 토양보존기술 개발(2019.1-2021.12)
- 상호 농업기술 교류 및 글로벌 인재 양성(연수 제도)
-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 사업기간: 2012년-2021년(10년)
- 총 사업비: 50억원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KDI

연도	정책 자문 주제	협력 기관
2011	전략산업의 수출촉진 정책수립 및 역량강화	국가개발기획처(SENPLADES)
2012	산업구조 고도화	국가개발기획처(SENPLADES)
2013	경제역량 강화	국가개발기획처(SENPLADES)
2014	산업·투자 역량 강화	산업생산성부(MIPRO)
2017	국가적합성 평가 체계 선진화	기술표준원(INEN)
2018	교통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교통공공사업부(MTOP)

○ 수산물 위생관리 기술 전수 사업

- 사업목적: 우리나라의 선진 수산물 위생관리 기술 전수를 통해 에콰도르의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위생 개선을 지원하고, 국내에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
- 사업내용: 위생관리 담당공무원 초청연수 및 유전자 검출기 등 수산물 유해물질 분석장비 지원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사업기간: 2015년-2019년(5년)
- 총 사업비: 15억원

○ 통계역량 강화 사업

- 사업목적: 한국의 선진 국가통계 활용 능력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에콰도르 통계청 실무자의 통계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신속·정확한 국가통계 생산시스템 도입 및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성공적 수립
- 소관부처: 통계청, 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
- 사업기간: 2016년
- 총 사업비: 5억원

○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

- 사업목적: 한국의 ICT 발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친한국적인 정책 환경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
- 사업내용: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및 방송환경 개선, 에콰도르 오픈데이터 구축 지원
-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사업기간: 2016년
- 총 사업비: 2.2억원

## 9. 유상협력

○ 지방 통신망 사업 1995.5-2000.12월 (1994.3월 지원요청, 1995.5 지원결정)

- 차관규모: 1,500만불(사업규모: 1,780만불)
- 사업목적: 통신기능 개선을 통해 낙후된 지방경제 개발 도모

○ 산토도밍고 상수도 확장 사업(2011.11월 사업 계약 체결)

- 차관규모: 4,360만불(사업비용: 5,690만불)
- 사업목적: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통한 보건위생 환경 제고
- 공사기간: 2011.11월-2015.7월

○ 산토도밍고 하수시설 확장 사업(2017.12월 사업 계약 체결)

- 차관규모: 6,798만불
- 사업목적: 체계적인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통한 보건위생 환경 제고
- 공사기간: 2017.12월-2019.4월

## 10. 교역 및 투자

### 가. 한-에콰도르 교역

(단위: 백만불)

수출 · 입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액	429	663	438	887	880	850
수입액	23	26	10	90	30	40
무역수지	406	637	429	818	850	810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액	920	812	641	434	609	805
수입액	48	342	246	94	128	117
무역수지	872	470	395	340	481	665

\* 출처 : 한국무역협회(KITA)

- 주요 수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정제유, 합성수지 등
- 주요 수입품: 새우, 바나나, 동과 및 스크랩, 어육 등
  - 한국의 대 에콰도르 수출은 2010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수출규모가 에콰도르에 비해 큰 비대칭적 구조
  - 2016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였는데, 에콰도르가 2014년 말부터 국내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수입쿼터제 및 세이프가드 등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한 것이 요인
  - 한국은 에콰도르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에콰도르는 한국에 농수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품 중 특히 자동차 관련 품목의 비중이 높으며, 수입품 중 새우가 1위를 차지

### 나. 주요 진출기업 현황

※ 2019.3월 현재 6개사 진출

- 건설업
  - SK 건설(키토): 2008.12월 지사 설립, 태평양 정유공장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에스메랄다스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 시행
  - 청해종합기술공사(키토): 2013.12월 에콰도르 공병단과 합작회사 ConEcuKor 설립

- 한솔 EME(산토도밍고): 2011.11월부터 산토도밍고시 상·하수도 확장 EDCF 사업 시행
- LS 산전(만타): 2015.9월 지사 설립, 마나비주 포르토비에호 변전소 건설 프로젝트 시행

### ○ 판매(무역)업

- 삼성전자(과야킬): 2001.10월 지사 설립
- LG전자(과야킬): 2002.2월 지사 설립

## 11. 재외동포 현황

### ○ 재외동포 수 및 지역별 분포

- 동포 수(추정): 약 700명(2019.3월 현재)
- 지역별 분포: 키토 400명, 과야킬 150명, 기타 지역 150명

### ○ 경제활동

- 주로 의류 및 잡화 판매업에 종사
- 최근 의류판매업의 부진 및 경기침체 등으로 상당수 동포가 중남미 인근국 및 본국으로 이전

### ○ 한인회 현황

- 키토 한인회(회장 이강우)

### ○ 한인 종교단체 현황

- 키토: 한인교회 4개소
- 과야킬: 한인교회 2개소



# X. 에콰도르-북한 관계

## X. 에콰도르-북한 관계

### 1. 외교 관계

- 에콰도르-북한간 외교관계 未수립

### 2. 인사 교류

- 양국 중앙정부 간 교류는 없는 것으로 파악
- 지방정부간 교류는 드물게 진행되고 있는바, 2018년에는 北 안주시 - 에콰도르 볼리바르州 에체안디아시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
- 북한 기관 - 에콰도르 지방정부 간 협정(기관 간 협정)을 통한 인사교류는 비교적 활발한 편으로, 현재 2개 주(피친차, 산토도밍고) 보건소에 北 침술사가 파견되어 활동 중

### 3. 에콰도르-북한 교역 (최근 5년간, 자료출처: 에콰도르 중앙은행)

- 교역은 활발하지는 않으나, 對北 수출에 비해 수입규모가 큰 편

(단위: USD)

	2013	2014	2015	2016	2017
對北 수출	-	-	-	11,240	1,150
對北 수입	-	45,240	3,071,264	61,399	2,480,998

### 4. 에콰도르-북한 관계 현황

- 과거에는 에콰도르의 좌파사회주의 성향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이념적 유대감이 미미하나 존재했으나, 점차 우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의 수교제의 등 접촉을 거부하고 우리 정부 주도의 對北제재에도 적극 동참
  - 北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시 정부 규탄성명 발표(2016.9월, 2017.3월 등)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9 및 232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
  - 북한인 입국사증 면제 혜택 박탈(2017.3월)
- 그러나 중앙 정부의 통제가 달지 않는 지방정부 및 민간영역에서는 간헐적이나 지속적으로 개별적·소규모의 교류가 진행

# XI. 출입국 제도 및 체재 시 유의사항

## XI. 출입국 제도 및 체재 시 유의사항

### 1. 입국 사증

- 일반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으나, 일반여권 소지 관광객에게 90일간 무비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며,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에서 90일 추가 연장 가능(수수료 U\$125)
- 입국 이후 다른 국가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 90일 무비자를 다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비자 부여(입국일 기준 1년 간 90일 부여)

### 2. 영주권 제도

- 에콰도르 입국 직후 영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17.2월 '이민법' 개정 이후 필수적으로 24개월(보통 12개월 씩 두 차례에 걸쳐 발급) 임시체류 비자 신청
- 임시체류 비자 취득 후 21개월째에 영주권 신청 가능하며, 비자 취득 후 90일 이내 건강보험증 의무 제출
- 임시체류 비자종류(12): △ 취업자, △ 연금수령자, △ 은퇴자, △ 투자자 (26,250불 이상 730일간 은행예치 또는 30,000불 이상 부동산 매입 또는 26,250불 이상의 주식 취득 또는 26,250불 이상의 실질적 투자 입증 시 취득 가능), △ 과학자, 연구자, 교육자, △ 체육인, 예술가, 문화사업 종사자, △ 종교인 / 자원봉사 종교인, △ 자원봉사자, △ 학생, △ 전문가, 기술자, 수공업자, △ 에콰도르인 혹은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 △ 국제협약에 의한 외국인 비자
- 임시 체류권 소지자도 신분증(Cédula) 발급 가능
- 영주권 취득 의무 체류기간 위반 시, 벌금 적용 또는 비자 자동취소
- 임시체류권자의 경우 1년 이내에 90일 초과하여 에콰도르에 부재 시 U\$1,125 벌금
- 영주권자의 경우 비자 취득 후 1차년도, 2차년도에 각각 180일 초과하여 에콰도르 부재 시 U\$1,500 벌금
- 임시방문자가 체류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채 90일을 초과할 경우 U\$750 벌금

### 3. 출·입국시 유의사항

- 세계보건기구(WHO) 규정에 따라 황열병 전염 위험국가로 지정되었으며, 중남미 등 여러 국가에서 황열병 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황열병 접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유의
  - 에콰도르 입국 시 황열병 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 ※ 브라질, 앙골라, 콩고에서 입국하거나 에콰도르 내 아마존 지역(Napo, Pastaza, Orellana, Sucumbios, Zamora Chinchipe, Morona Santiago 등) 방문 예정 여행객은 입국 심사 시 황열병 접종증명서를 제시. 단, 브라질에서 12시간 미만 경유 또는 단시간 에콰도르 경유 여행객은 제외
    - ※ 입국시 요구하는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는 최소 10일 이상의 유효기간 필요
  - 에콰도르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황열병 접종 증명서 요구 국가
    - ※ 앤티카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스,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연방,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파라과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 \* 황열병 전염 위험국가 목록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여행객에게 요구
- 입·출국시 제한되는 금액
  - U\$10,000 이상의 외화를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반입액의 30%를 세금으로 납부
  - 외환관리법에 의거, 출국시 1인당 U\$1,098을 초과하는 외화(모든 화폐 및 여행자수표 포함)에 대해서는 5%의 외화유출세(ISD)를 부과하며, 출국시 초과금 미신고 시 적발되는 경우 최대 소지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 모든 물품에 대해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인보이스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

### 4. 기타 참고사항

#### 가. 교통 법규문화 및 운전시 유의사항

- 운전 및 보행문화 미성숙
  - 갑작스런 정지, 끼어들기 및 차로 바꾸기, 방향지시등 안 켜기, 양보하지 않는 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등 자주 발생
  - 보행자 도로 무단횡단 빈번
- 회전 교차로 주행시 유의

- 에콰도르는 회전교차로가 많으므로 주의요망
  - ※ 이미 진입해 진행 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입 시 우선 정지 후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 그러나 실제로는 급하게 진입하거나 진입 후 차로를 갑자기 바꾸는 차량이 많으므로 주의 요망

#### ○ 사건·사고 사례

- 지방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충돌사고(우리국민 피해)
  - ※ 현지인 차량이 졸음운전 등으로 한국인 차량을 중앙선 침범 후 정면충돌, 우리국민 2인 및 현지인 2인 사망
- 도로변 행인 등 가해 사고(우리국민 가해)
  - ※ 우리국민이 도로변 행인 등을 치어 6명 사상자 발생하였으며,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피해자와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필요

#### ○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고, 경찰조사 필요시 긴급전화(911)로 연락
  - ※ 경찰 신고 시 대물 손해금액에 따라 벌금·벌점이 부과되고, 부상자 발생 시 사고조사를 위한 구금 제도가 있으므로, 관례상 당사자 간 합의 처리 선호

#### ○ 기타 유의사항

- 키토 등 고산도시의 도로는 경사와 커브가 심하고 차로폭이 좁으므로 1차로로 운전 시 정면충돌 등 대형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1차로 주행 삼가 필요

### 나. 고산병

- 해발 2,000~3,000m 이상의 고지대로 이동하였을 때 산소가 희박해지면서 나타나는 신체의 급성반응으로, 두통, 안압, 어지러움, 메스꺼움, 수면장애 등 증상
  - 무리한 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적응기간을 갖고 여유 있게 활동
  - 한국에서 미리 약을 처방받아, 도착 하루 전부터 하루 2~3번 나눠서 복용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량의 알코올 및 담배 삼가기

#### 다. 지진 등 자연재해

- 에콰도르도 ‘불의 고리’에 위치하여 지진 및 화산재 분출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에콰도르 여행자 및 거주자는 지진 발생 안전 대비 요령(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숙지 필요
- 고산지대로 자외선 수치가 높아,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 긴팔 셔츠 착용